

당신도 부동산의 전문가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무료 교육생 모집

인천부동산교육원에서는 이번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하여 공인중개사 전 과정을 무료로 교육합니다. 신청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하며 10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교육기간

2004년 12월 1일 ~ 2005년 1월 29일(2개월)

교육시간

A반 (10시~13시)
B반 (14시 30분~17시 30분)
C반 (19시~22시)

준비물

사진1매, 등본1통, 접수비 35,000원, 교재비 별도

부동산 경매 교육생 모집 (12월 1일 개강)

- 경매절차실무(2주)
- 경매권리분석실무(2주)
- 투자분석(1주)

※일반적으로 경매교육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삽입하고 고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원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경매교육은 경매 참가자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교육과정만을 알차게 교육하며, 초보 경매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도 18만원에 6주코스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과정 (12월 1일 개강)

중개업창업실무과정 (5주)	수, 목	20만원
부동산 풍수지리과정 (4주)	금, 토	15만원
부동산 마케팅과 실무 (4주)	수, 목	20만원
부동산 컨설턴트고급과정 (8주)	금, 토	35만원
부동산 양도세 실무과정 (4주)	월, 화	20만원
부동산 디지털 카메라과정 (4주)	월, 화, 수	20만원
부동산 법무실무과정 (4주)	금, 토	20만원

교수진

생산성본부교수진

- 부동산 마케팅과 실무,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중개업협회교수진

- 경매, 중개업창업실무, 풍수지리

본원교수진

- 부동산양도세실무, 부동산법무실무, 부동산디카

인천부동산교육원

032) 435-9908

(간석오거리역 1번 출구앞)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4 | 12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情
건강한 먹거리 판매점
자유공원 일대 반나절 기행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인천 앞바다 바로 알기 탐사활동전



인천 앞바다의 보석인 아름다운 섬들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인천 앞바다 바로 알기' 탐사활동. 그 활동을 정리하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고장에 대한 애정으로 뭉친 사람들과 인천의 아름다운 보석들,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 _ 12월 3일 ~ 9일 (1주일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문의 _ 인천광역시 수질보전과 (440-3641~5)

■ 탐사활동 보고서 발간 기념식	12월 3일(금) 오후 5시 대전시실
■ 탐사활동 사진전	12월 3일(금) ~ 9일(목) 대전시실
■ 인천 앞바다 동·식물 표본 전시	12월 3일(금) ~ 9일(목) 대전시실
■ 갯벌보전 및 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천포럼	12월 4일(토) 오후 3시 국제회의장
■ 섬 생태보전을 위한 토론회	12월 8일(수) 오후 2시 국제회의장



Contents

- 04 조명 | 제1회 인천국제디자인페어
- 08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자유공원 일대 만나질 기행
- 12 우리 세상살이 |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
- 16 정보뱅크 1 | 건강한 먹거리 판매점
- 20 정보뱅크 2 | 색다른 맛, 유기농 음식점
- 21 파이팅 인천 |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 22 함께 나누는 세상 | 풍물강습 자원봉사 최선옥씨
- 24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㉔ | 답동성당(성바오로 성당 · 사적 제 287)
- 28 in. Stage | 〈유리상자 크리스마스 콘서트〉 외
- 32 공연리뷰 | 인천주부극회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 33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 탐라도 · 하여울
- 34 동서남북 | 청소년 Drop-in Center, 성문화센터
- 36 굿인천 굿뉴스 | 우리시 수돗물 '안전' 외
- 40 의정소식 | 인천광역시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외
- 4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뉴스 | '그린피아' 송도신도시 조성 외
- 42 Good Info. | 대중교통 무료 환승과 요금 할인제
- 44 과거로의 시간여행 | 점순네 이겨라... 송도맥 이겨라
- 45 Youthzine | 인화여자중학교 가야금동아리
- 46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 열두번째 사람 | 한명옥씨
- 50 Healthy Life | 노인들의 겨울철 건강관리
- 51 독자마당 | 바다낚시 외
- 56 Info Box |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외
- 59 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㉔ | 황홍철 〈소래포구〉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4.12 (통권 132호)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굿모닝 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발행일자 2004년 12월 1일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지영일 사진 심영보 · 하장원(시공보관실) · 김성환 · 김정식(자유사진가)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 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쌍~쌍 달라지. 인천대공원 눈썰매장

디자인과 通하였느냐~

삶은 예술이요, 일상은 디자인이다

세계는 상상력이다.

상상력의 빈곤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으며 유익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문화의 진보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통속적이요, 진부하다는 것이 곧 퇴보요, 퇴화이며 종국에는 멸종을 의미한다면 허무맹랑한 주장일까?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고 물건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디맹’ (디자인맹)임에 틀림없다. 세계가 ‘디자인’을 외쳐 부르고 급부상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별대우하는 것을 보면 분명 그럴만한 연유가 있을 터.

주변을 둘러보자. 모든 길은 디자인으로 통한다. 우리는 일상화된 디자인의 세계속에 살고 우리 삶 자체도 ‘디자인’ 한다. 이는 재해석이요, 재창조이다. 그래서일까? 제1회 인천국제디자인페어 행사장에는 유독 어린이 관람객들과 일반 시민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일순 소란스러워지며 분주한 발자욱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어린 눈들이 작품마다에 쏠린다. 너무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에 호기심어린 눈망울은 또 다른 전시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관교동에서 놀이방 교사를 한다는 정경숙씨는 “그간 보았던 많은 전시회에 비해 색다른 소재와 내용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이 한껏 고조되었다”고 말한다. 디지털 영상관에서 동영상 단편 애니메이션에 열광한 아이들은 ‘우리엘 상사’에서 출품한 우리엘퍼즐 한글놀이기구 둘레에 떼지어 몰려 앉아 공부인지, 놀이인지에 열중한다. ‘한국싸인’의 블라





터치스크린

성대 보조 기구인 대상작 '삶'

인드형 LED전광판을 앞뒤로 돌려보며 정체를 파악하기에 여념없는 어린 관람객도 있다. ‘이런 것도 다 있네’라는 듯한 표정으로 작품 하나하나를 둘러보는 시민들,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자기들만의 품평을 서슴치 않는 이들은 비로소 디자인을 만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삶’이란 주제어가 붙은 의료기구의 일종인 대상 작품 앞에 서고 보면 “‘기쁘다, 따뜻하다, 좋다’가 곧 디자인이다”라는 어떤 이의 말이 떠오른다. 어느새 내 곁을 지키고 있던 그대여!

이같은 특별한 일을 하는 전문 디자이너는 카멜레온에 비유될 듯 하다. 발칙한 상상과 발상의 전환, 크리에이티브 정신은 기본이고 때론 마케팅 전문가로, 어디에서는 한사람의 예술가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일반 사용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산업의 역군이자, 문화의 전위대나 다름없다. 새삼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손끝에 인천의 명운이 달려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국제도시로의 발돋움을 이미 넘어 도약해 나가려는 인천에 있어 ‘디자인’은 이제부터라도 깊은 의미로 다

가울 터이다. 국제도시, 동북아관문도시, 물류중심도시를 표방한 인천이야말로 디자인하기 좋은 도시이자 가장 디자인적인 도시여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정신이 빠진 인천은 몰인정한 개발 일방의 도시이다.

그렇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디자인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인천국제디자인페어는 학계, 업계, 행정 삼자가 한자리에 모여 디자인과 인천의 함수관계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기회였다. 이호명 행사기획단장에게는 디자인 불모지 인천을 이제사 탈피하게 됐다는 보람이 가장 큰 선물이다. 계층간, 부문간 교류도 큰 성과지만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따진다면 디자인 부문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디자인’을 통해 무르익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각 주체들의 역동적인 교류, 네트워크 가동이 기대된다.

준비한 이들이나 방문객들 모두에게 이번 행사는 그저 볼만한 행사를 넘어서서 인천의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도요, ‘저 넘어 세계’에 간혀있던 디자인이 비로소 가깝게 느껴지는 첫 눈뜸이었다.

전시장을 가득 채웠던 그 기운은 무엇일까? 호기심과 상상력, 희망이 뿜어내는 창조의 숨결은 아니었을까. 이제부터 인천의 변화는 이들의 강약에 달려있음이 분명해졌다. 인천의 변화를 주도해갈 디자인이란 화두가 모두에게 던져졌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는 올 3월 뜻을 올린 ‘인천디자인전문회사협회(IDCA)’의 역할이 컸다. 이 단체를 위해 비콘디자인, 파인텍, 아이디엘 등 인천 14개 디자인전문회사가 한데 뭉쳤다. 이들은 모두 국가 공인업체. 모름지기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공인 디자인전문회사라 함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풍부한 아이디어와 전문실력을 겸비한 기업을 엄선, 대표기업으로 뽑은 경우로, 그만큼 질적 승부가 가능한 주력부대인 셈이다. 민간차원에서 이들이 새롭게 태어날 인천을 기획하고 시민의 디자인 마인드 확산에 주력한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정 모든 분야에 디자인 마인드를 배어들게 하려는 노력이 가일층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디자인 인력 양성, 관련기업의 활동 촉진, 각종 진흥책에 대한 절실한 목마름도 이야기한다.

글_지영일 · 사진_김정식



다부진 씨앗들의 옹골찬 싹 틔우기

2004년 11월 3일, 가을날 오후. 양징스런 장신구와 제법 모양새를 낸 패션 디자인까지 여러 날을 조물락거리고 머리를 쥐어짜냈을 수고의 결실이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도를 따라 가지런히 손님을 맞고 있다.

인천의 초·중·고 학생들의 디자인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인천디자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04 인천학생디자인경진대회’ 수상작 전시 3일째 날이 그렇게 조용히 지나고 있었다. 마침 지

상에서는 쟁쟁한 전문가들의 한판 경연이 있었다면 디자인 꿈나무들의 나름대로 치열한 지하 뽐내기였던 셈이다. 이번 대회에는 기초디자인, 조형디자인 등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65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그중 행운을 잡은 1백여점의 작품이 대표해서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 대회를 준비한 양희진 교사(인천디자인고등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는 “비록 능숙한 솜씨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작품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족했고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첫 대회치고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자평했다.

비록 무심히 지나가는 행인 1, 2, 3도 있고 허리를 숙여 잠시 감상에 빠지는 듯한 사람, 드뭇없이 기념촬영을 하는 이벤트도 연출되던 전시장. 행여 작품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도우미 학생들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잘 만들었다고 너스레를 떠는 관람객이라도 있다면 반갑더이다. 그 사이 디자인 세상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어린 뿌리를 강단있게 내리고 있으려나...

인천이여 디자인으로 부활하라!

정화수 한 그릇 떠 놓고 자식의 입신양명을 비는 것이 어디 어머니뿐이라. 디자인 전문기업 ‘아르필’의 대표이자 ‘인천디자인전문회사협회(IDCA)’ 회장인 강정란씨도 제1회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그렇게 가슴에 담았다. 준비와 진행 내내 기도하는 마음과 초조함이 교차했고 이후 감격과 희망이 화답했다.

몇 달 남짓 사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보태고 시간을 내는 정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물론 그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밝혀야겠다. 왜였을까? 스며들고 만나고 싶어서였다. 무엇을? 디자인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편견, 외판세계처럼 여겨지는 ‘디자인’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많은 아이디어와 제품이 곧 그것임을 통해서.

인천국제디자인페어라는 무대를 통해 인천의 디자인 현주소와 미래를 가늠할 계기를 마련했다면 일반 시민과 업계 사이 교감을 틔우는 성과도 있다. 이 부분에서 강정란 대표는 눈에 띄는 인물이다. 이제부터가 ‘디자인 인천의 원년’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강 대표는 “지금까지 ‘디자인’ 하면 단순한 돌발적인 아이디어, 무형의 창조성으로 어쩌다 얻어지는 것, 내지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수모도 겪었다”면서 “먹고 사는 것에 디자인이 무슨 관련인가라는 구태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삶과 과학, 산업, 예술 등의 조밀한 결합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이런 그에게 ‘디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기쁘다, 따뜻하다, 좋다’가 곧 디자인이다”라고 일갈할 것이다.



자유공원에서 ‘자유’를 찾다

공원은 도시인의 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준다. 가까이 있지만 오히려 외지인보다 발길이 가지 않는 곳이 도심 공원이다.

자유공원은 ‘아버지의 공원’이었다. 초겨울, 아버지의 바튼 기침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 공원에 올랐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타임캡슐’인 자유공원. 그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자연과 인문이 뒤섞여 있는 공간이다. 순전히 바람을 쐬기 위해 이 공원을 거닐어보지만 나들이는 어느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역사산책’으로 바뀐다. 그만큼 이 공원 구석구석에는 역사와 관련 있는 ‘과거’가 자리잡고 있다. 각국공원, 만국공원, 서공원, 자유공원… 100여 년 동안 공원의 이름이 여러차례 바뀔 만큼 이 공원의 운명은 기구하다. 인천이 개항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자유공원은 한때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나들이 명소였다.

우리는 늘 그 앞에 선다

오후에 시작한 공원 산책은 ‘장군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했다. 인천하면, 맥아더 동상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은 인천최고의 상징물이었다. 50년 동안 빛 바랜 사진 속의 멋진 배경이 되어준 그 동상은 여전히 기념사진의 한구석을 차지하곤 한다. 충청도 서산에서 인천나들이를 온 60대 할아버지들이 장군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한다. 이제는 공원에서 아니면 볼 수 없는 길거리 사진사의 쓸쓸한 눈빛을 뒤로하고 옛날에 비둘기장이 있던 광장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공원은 그리 많지 않다. 비둘기 광장은 자유공원에서 바다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마치 짝조름한 바다 냄새가 수풀 내음과 뒤섞여 올라 오르는 듯 했다. 500원 짜리 동전을 넣어야 눈을 여는 망원경이 몇 대 설치돼 있지만 맨눈으로 봐도 잘 보일 만큼 바다는 가까이 있다. 갑문을 통해 들어와 부두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과 여객선들의 모습 그리고 월미산의 자태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맛에 자유공원을 오른다. 광장에서 시작된 내리막 층계는 발걸음을 독특한 서구풍의 건물로 안내한다. 개항기 때 외인들의 사교장이었던 ‘제물포구락부’ 건물이다.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문 금발의 신사가 이층 창가에 걸터앉아 석양별을 찢며 책을 읽는 모습이 금방 그려진다. 현재 중구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고수, 조인성, 김하늘 등이 출연한 TV드라마 <피아노>의 무대이기도 했다.



문화원 정문 앞으로 난 오솔길은 팔각정 ‘석정루’로 이어지는 길. <피아노> 화면에도 자주 비칠 만큼 자유공원에서 가장 예쁜 길이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곳곳에 서있어 여름철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초겨울을 맞은 나무들은 발아래 낙엽을 수북히 쌓아놓았다. 물기가 짙은 낙엽을 밟으니 힘없이 바스라지며 발목까지 쑥 들어간다. 밟히는 것이 어디 낙엽뿐이라. 호젓한 오솔길을 걷다보니 도시생활에서 얻은 갖가지 상념들이 하나 둘 밟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늘 그곳에 오른다

석정루에 올랐다. 자유공원의 또 다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2층 누각을 사람들은 보통 팔각정이라고 부른다. 2층에 올라 팔각을 빙 둘러보면 바다, 항구, 월미산, 만석동 공장, 차이나타운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해가 기울 때의 석정루 실루엣은 한편의 동양화가 된다. 가파른 길을 따라 거대한 조각품처럼 우뚝 솟은 한미수교100주년 기념탑으로 올랐다. 자유공원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이다. 하늘을 찌르는 8개의 검은 동판은 미국인들의 콧대만큼이나 거만하게 보인다. 자유공원 기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새로운 명소는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이다. 2001년까지 인천시장 공관이었던 이 멋진 한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부호의 저택이었다가 광복 직후에 ‘동양헌’이라는 양식집으로 사용된 유서 깊은 건물이다. 대지 664평 건물 112평의 역사자료관은 넓은 정원과 나무 그리고 자연석을 이용한 꼬불꼬불한 돌계단 등 조경이 뛰어나다. 굳이 자료관 이용이 아니더라도 낮 시간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뜰 안을 걷거나 파라솔 혹은 벤치에 앉아 인천향을 내려다보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심심치않게 웨딩사진을 찍는 예비신혼부부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역사자료관이 있는 송학동은 한때 ‘인천의 성북동’으로 불릴 만큼 담장 높은 저택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 담쟁이 넝쿨이 우거진 일본집들도 적지 않아 동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해가 누엣누엣 기울면 공원의 북서쪽으로 난 산책로로 접어든다. 겨울 해는 월미산 쪽으로 기울고 항구는 빛의 항구로 서서히 변신한다. 바다와 하늘을 캔버스 삼아 진홍색 유화 물감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황홀하고도 장엄한 장면을 산책로에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파도가 고개를 세우기라도 했나보다. 바다 쪽에서 칼바람이 밀려온다. 중국춘 청요리 냄새가 그 바람에 묻혀 올라온다. 허기를 느끼며 서둘러 자유공원을 내려왔다.

글 _ 유동현 · 사진 _ 김성환

자유공원 가는 길 _

경인전철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신포동 쪽에서 흥예문을 거쳐 오를 수도 있다.



석정루 · 연오정



석정루는 1966년 팔각모양의 2층 누각으로 건설되었다. 이곳은 일종의 공원전망대 역할을 할 만큼 조망이 좋다. 100여m 떨어진 연오정은 단층 누각으로 노인들의 쉼터 역할을 한다.

비둘기광장



예전에 커다란 비둘기장이 있던 곳으로 인천항, 월미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매점, 망원경 등이 설치돼 있다.

중구문화원



시 지정 유형 문화재 17호로 옛 제물포 구락부 건물이다. 1901년에 지어졌으며 당시 인천에 살던 외국인들의 사교장이었다. 인기 TV드라마 <피아노>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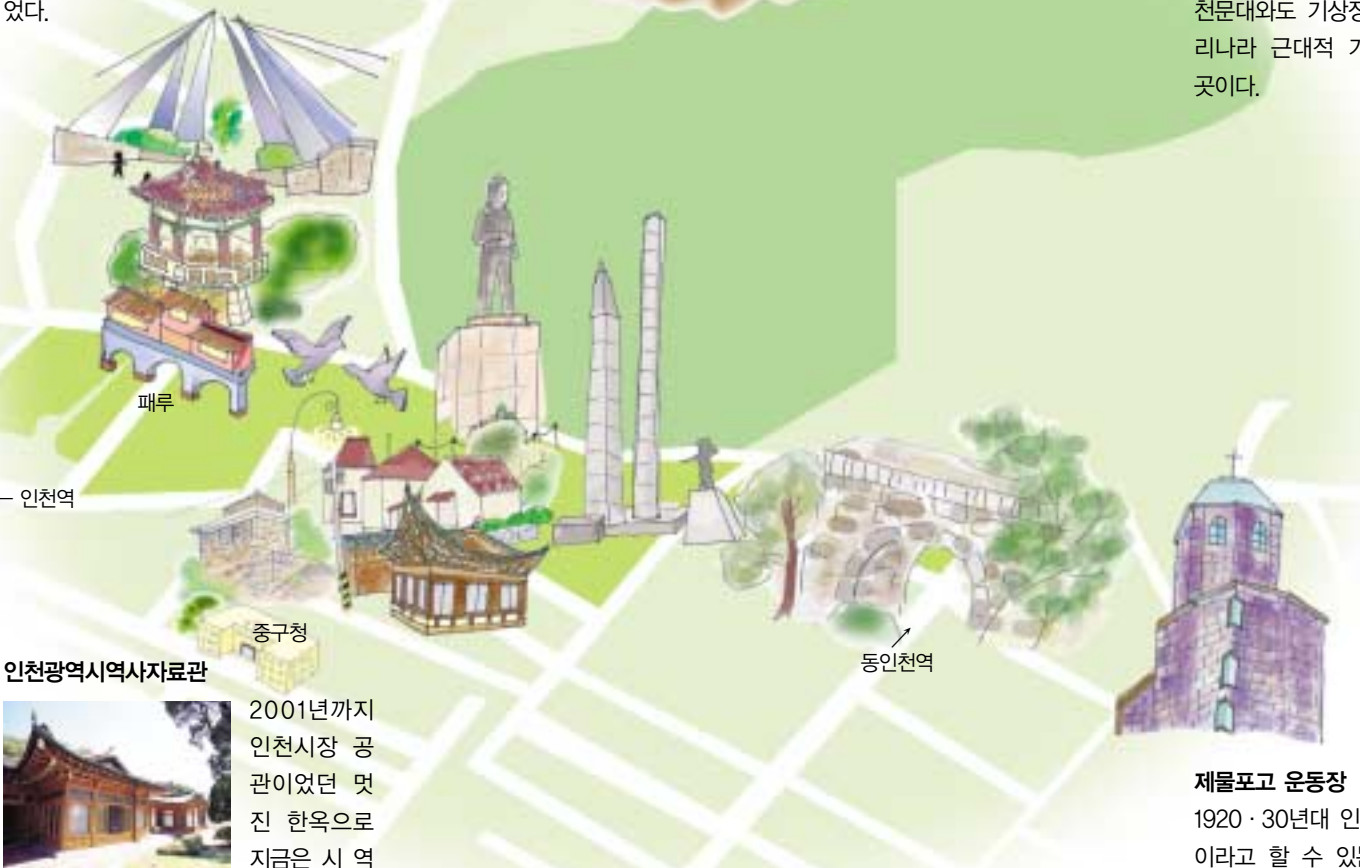


1882년 5월 22일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화도진 언덕에서 조선과 미국이 전문 14조로 된 한미수교통상조약을 체결했다. 한 세기 동안 맹방으로서 결속을 다진 양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자유공원에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다.

맥아더 동상



한국전쟁을 일시에 반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주역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자유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1957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7돌을 맞아 제막되었다.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2001년까지 인천시장 공관이었던 멋진 한옥으로 지금은 시 역사자료관으로 사용된다. 낮시간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뜰안을 걸으며 인천항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인천기상대



천문대와도 기상정보를 교환하는 등 우리나라 근대적 기상의 주춧돌을 쌓은 곳이다.

인천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



1950년 12월 18일 3천여 명이 죽현초등학교에서 출정식을 갖고 남하한 인천출신 3천여명의 학도의용대를 기리는 탑. 육각연필형 참전기념비와 남학생 2, 여학생 1명으로 된 의용대 참전 동상으로 이루어졌다.

홍예문



1908년에 완성된 높이 13m 폭 6.7m의 화강석과 벽돌을 혼용해서 만든 아치 구조물로 윗머리가 무지개 형상을 한 문이라고 해서 홍예문(虹霓門)이란 이름이 붙었다. 영화의 단골배경이기도 하다.

성공회 내동교회



1890년 9월 29일, 한국성교회 초대 주교 고르페는 송학동에 한국최초의 성공회교회인 성 미가엘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에 들어갔다. ‘제물포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닥터 랜디스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의료활동 펼쳤던 유서 깊은 교회이다.

공 원 카 페 3 곳

노을향 커피향...그리고 문화향기



자유공원 곳곳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인천향과 월미산 그리고 노을 등 ‘인천’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숨어 있다. 홍예문 윗길에 자리잡은 ‘파랑돌’은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문화공간이다. 파랑돌(Farandole)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2/4박자 춤곡의 이름이다. 리어석기타합주단 단장 리어석씨가 운영하는 이 건물은 1층 아트홀, 2층 카페 그리고 지하는 기타교실로 꾸며져 있다. 1·2층 모두 전망이 뛰어나다. 공원 아랫동네인 신포동, 중앙동을 밑에 두고 인천항과 연안부두 그리고 앞바다가 바로 코앞에 펼쳐진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1층 아트홀에서는 향구의 불빛을 배경 삼아 작은 음악회가 열리거나 <오페라의 유령>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문화향기가 폴폴 배어난다.(☎ 761-7829)



리치

‘파랑돌’에서 몇 발자국 걸음을 위로 옮기면 담쟁이 넝쿨로 반쯤 둘러싸인 카페 레스토랑 ‘리치’가 있다. 돈가스, 낙지볶음 등의 식사와 칵테일, 커피 등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1층에는 포켓볼을 할 수 있는 당구대가 자리잡고 있는 웨스턴 스타일의 바(Bar)이다. 2층에는 낙조와 인천의 야경이 남쪽으로 난 큰 창문에 시원스럽게 비친다.(☎ 772-7004)

북성동 차이나타운의 석조 패루 선린문 옆에 자리잡고 있는 ‘캐슬’은 이름처럼 그 외관이 작은 성처럼 생겼다. 현재 2층과 3층을 카페 레스토랑으로 쓰고 있는데 이 집의 분위기 으뜸은 3층 테라스. 3층은 반은 실내이고 반은 노천이다. 옥상 노천에는 천연잔디가 심어져 있고 작은 연못도 만들어 놓았다. 캐슬에서 내려다보이는 중국촌의 붉은 등불이 이국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만석동 공장 불빛과 거대한 영종대교의 불빛도 한눈에 들어온다.(☎ 773-2116)



캐슬

사랑의 불씨 키운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다. 이런 때일수록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마음 씀씀이가 더욱 소중하다.

내 작은 정성이나 노력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볼 일이다.

❁ 한 장으로 결핵 환자 돕자 크리스마스 썸

크리스마스 썸은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4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한 해 동안 3천3백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9명으로 미국의 23배, 일본의 4배 등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썸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마련된 재원은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결핵이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준다.

올해 크리스마스 썸의 도안은 지구촌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쟁과 테러 등의 위협에서 세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꿈을 담아 천진스런 아이들이 자기나라 민속의상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썸은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 주관 '크리스마스 썸 콘테스트'에서 1위에 입상한 것이라 더 의미 있다.

크리스마스 썸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1매당 가격은 250원이고 1시트(12매)는 3천원으로 2005년 2월 28일까지 판매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썸이 기존의 우표형 태에서 작년부터는 '스티커 크리스마스 썸'로 제작돼 자기가 좋아하는 소품과 핸드폰 등에 붙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문자 세대를 위한 '모바일 크리스마스 썸'도 있다. 핸드폰에서 **1225 번을 순서대로 누르고 통화버튼을 누른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진행하면 모바일 썸을 다운받을 수 있고 한번 다운받는데 1천원이다.

문의 _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 (868-8921)



❁ 필요없는 물건으로 다른 사람 돕자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란 시민들로부터 안 쓰는 물건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이를 손질해 싼값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순환과 나눔'의 운동이다.

아름다운가게 인천 1호점이 지난 3월 23일 동인천역의 엔조이쇼핑몰 2층에 30평의 장소를 마련하고 첫 선을 보였다. 첫 인천점이니 만큼 우리시도 '인천시청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에 들어서면 정면의 밝은 간판이 환한 인상을 갖게 한다. 성인용, 아동용 옷과 액세서리, 가방, 책, 비디오 등이 멋스럽게 디스플레이 돼 있다. 진열돼 있는 옷들은 대부분 백화점에 걸려있어도 손색이 없을만한 옷이다.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백화점과는 천지차이다. 바지는 1천원부터 3천원, 자켓은 5천원에서 7천원정도니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가격이다. 청바지, 아이들 옷과 가방, 액세서리, 그릇 등도 만원을 넘는 것이 거의 없다.

가게 뒤편에는 기증자가 편하게 물건을 넣을 수 있는함이 놓여 있다. '이런 것도 기증해도 되나'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배려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물품을 기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물론 기증할 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수거하러 가기도 하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 인천 2호점은 지난 11월 5일 인천터미널에 문을 열었다. 인천터미널 노동조합에서 20평을 기증했고 인테리어, 사무집기, 비품 등은 터미널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의 기부로 매장을 완성해 더 의미가 있다. 인천터미널점은 터미널의 특성을 살려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관련 물품, 여행서적, 여행안내서 등 여행특화코너와 우리나라 유일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인천의 특징을 살린 중국코너 등도 꾸밀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의류나 주방용품, 유아용품, 소형 가전제품, 레저용품 등을 기증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이상씩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천사'가 될 수 있다.

문의 _ 동인천점 773-0657 / 터미널점 424-7004 아름다운가게 (<http://www.beautifulstore.org>)는 오전 10시 30분에 문을 열어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도 시간은 같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1 아름다운가게 동인천점 2 동인천점에서 활동천사로 봉사하고있는 함영상(65·중구 운남동)씨 3 인천터미널 2층에 자리잡은 아름다운가게 인천터미널점



달랑 달랑 종 소리에 사랑을 담자 구세군 자선냄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면 떠오르는 풍경, 그리고 소리 하나. 구세군의 자선냄비이다.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구세군은 우리나라에서는 1928년 서울 도심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종을 울려 불우이웃돕기를 시작했다. 자선냄비는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종을 울리며 전후의 고아들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사업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올해 자선냄비 모금은 12월 2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인천에서는 동인천역 지하상가, 신포동시장, 주안역 지하도, 송내역, 부평역, 관교동 신세계백화점앞, 롯데백화점 부평점앞 등 7개 지역에서 모금할 예정이다.

시내 곳곳에 설치돼있는 자선냄비 모금함을 통해 모여진 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집단구호와 심장병 환자 치료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가 울리는 모금기간 동안 1천만원 짜리 수표가 나오는 등 따뜻한 손길이 마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도 꼬맹이들의 코 문은 돈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씹짓돈까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랑의 불씨가 인천에서 활활 지퍼질 것이다.

아울러 구세군에서는 자선냄비 거리 모금 외에 결식아동 및 공부방 지원과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지원을 위해 월 2천원의 정기후원을 받고 있다.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구세군 홈페이지(www.jasunnambi.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_ 구세군 대한본영 (02-720-8250/9507)



빵 한 조각으로 북녘 동포에게 나누는 사랑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가 지난 10월 18일 결성됐다. 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남북 지원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인천을 통일의 거점 도시, 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615명의 발기인 모집을 시작으로 평양 영양빵공장 건립사업, 백두산 사업지원 등의 북녘동포 지원사업과 남북지역간 자매결연 추진, 문화·예술·학술교류 추진, 자치단체 교류 지원 등 남북지역간 교류협력사업을 펼친다.

특히 북녘어린이가 영양빵공장 건립운동으로 추진하는 '1인 5천원 1구좌 갖기 운동'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통일운동이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북측은 평양에 빵공장 부지 및 건물과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은 기계설비 지원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빵은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된다.

시민들은 공장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종자돈을 후원할 수 있다. 또 매달 빵 생산을 위한 1구좌(5천원)후원도 가능하다. 이 돈은 빵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구입하고 나아가 빵 생산량을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빵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자금이 된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빵기계와 설비시설 등 설립비용으로 3억원, 매달 빵 재료비 등 운영비로 매달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5천원이면 빵 30개를 만들 수 있다.

문의 _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본부 (461-0615)



저소득층 힘내라~ 힘! 도와주는 광역자활지원센터

지난 2000년부터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는 각 구에서 11곳의 자활후견기관이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각 구의 자활후견기관은 간병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등을 운영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8시간 근로를 하도록 한다. 우리시 통계에 따르면 자활사업에 활동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2천명에 이르고 조건부 수급자는 7천명에 이른다.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과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는 11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연대해서 사업을 펼치는 광역단위 사업의 협의와 관리,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개별 자활후견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직접사업도 펼치고 있다. 우선 자활을 하려는 이들의 공동창업을 지원한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창업자금과 생업자금, 임대·전세보증금 등의 자금 대출을 알선해 준다. 또 업종선택, 시장조사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경영컨설팅과 창업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벌여 20개 업체에서 참여해 160명이 이력서를 제출했고 J&P라는 열풍기 제조업체에서는 8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통보해 왔다.

남구에서는 재활용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쓰지 않는 물건이나 방치된 물건을 수거해다 싼값으로 판매하는 매장이다. 혹시 방치돼 있는 재활용물품이나 땅이 있다면 기증하는 것도 좋겠다. 재활용물품은 판매를 통해 자활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되고, 놓고 있는 땅은 자활 근로자들에게 '공동농지'가 되어 자활의 기반이 되어준다.

문의 _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437-4051~4)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정식



1 소자본 창업교육 2 간병사업단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 3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구인·구직자를 직접 연결해주기도 한다.



입양, 또 다른 출산의 기쁨

우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부터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를 국내입양활성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입양활성화 추진사업은 인천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인천 또는 국내입양가정에 우선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입양가정에 3년간 월 10만원씩 아동양육보조금을 지원해 아동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로 입양아동의 장애발생시 인천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연계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시와 홀트인천아동상담소가 공동으로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거리캠페인, 시민 대토론회, 예비양부모 및 입양가정 교육 등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가는 미래를 짊어질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입양을 통해 '또 다른 출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_ 인천아동상담소 (424-0415, 1588-7501 / www.holt.or.kr / 남구 주안동 161-5)

자연이 선물한 그대로 유기농이 ‘좋다~’

밥상을 들여다보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맛도 있고 보기는 좋지만 그것으로 다인가? 음식은 우리의 기본을 형성한다.
혹여 인공색소와 감미료 범벅이거나, 키워지는 과정에서나
밥상까지 오르는 도중에 무엇인가에 오염되지는 않았을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되살리고 환경과 삶을 살리는 식탁을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



1996년 우르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촌 자생력이 극도로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가톨릭교회 내에서 우리농촌을 살리자는 운동이 들불 처럼 일기 시작했다. 전국 교구단위로 ‘우리농’이 설립되었으며 가톨릭농민회 등의 조직과 함께 공급과 유통망을 짜나가게 되었다.

서울 등 소비중심의 지역과는 달리 인천은 생산지를 아우르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활재 공급과 가격 결정 등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지역에서 거둔 농산물이 상당부분 지역에서 소비된다. 요즘은 햅쌀과 김장용 절임 및 통배추, 순무김치를 내놓고 있다.

지역에 따라 요일별 배송하며 매일 오후 5시(토요일은 12시)까지 주문마감한다. 이용문의 및 전화주문은 사무국(812-0561)으로 해야 한다. 기타 일반매장과 성당매장에서 현지구입이 가능하고 동절기 오전 10시~오후 7시, 하절기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매달 소식지를 발행, 물품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3년 조합을 설립해 인천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유기농산물 매장이다. 현재 연수매장과 남동매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매장마다 별도의 회원 전용공간을 두고 있다.

요즘엔 햇곡식과 사과, 단감 등 제철 과일이 제법 잘 팔린다. 유정란과 과일음료는 스테디셀러.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단순 1차 생산품이외에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매장회의와 생활재위원회를 통해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즉석 곰탕’.

하루 2백여명이 방문하고 월 3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정도다. 조합원제로 운영되며 조합원에게만 물품을 판매 공급한다. 현재의 조합원은 약 4천5백명정도.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기본 출자금 2만원을 납부하면 되고 주문할때마다 5백원씩 자동출자된다.

푸른생협은 잘 짜여진 조직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합원의 식생활문화 전반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회원 내지 소비자와 연관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도농교류행사, 대상별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생활재공급은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따라 주 1회 공급한다. 사전주문, 인터넷 주문, 공동구매 등 주문조건에 따라 약간의 할인혜택도 준다.





지난 98년 10월 계산동 성당 안에 소규모로 문을 열었다가 사단법인화하면서 별도의 매장으로 독립하고 김포매장도 개설했다. 조합원 형태로 운영하며 현재 2천7백여 명의 조합원이 이곳을 이용한다. 일반인도 이용하지만 조합원 단가에 5%정도를 할증한다. 3일전 주문해야 하며 매주 요일별 지역을 순회 배송한다. 취급품목은 5백여가지가 넘는데 명절이나 김장철이면 기획상품을 포함해 1천여가지를 판매하기도 한다. 배터리없이 사용가능한 라디오나 시계, 재생용지 휴지(무형과 무표백) 등도 살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으며 매장을 이용할 경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공휴일 정상업무) 판매한다. 주문조건에 따른 할인혜택도 적용된다. 계산동 본점의 경우 18평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계산동성당 공간을 빌려 글쓰기, 창의력교실, 외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농촌체험과 같은 가족단위 이벤트도 수시로 개최한다.

초록마을은 1995년 한겨레신문에서 무공해 세제인 '한국소세제'와 자연 화장품 '자연의 빗'을 독점 공급하면서 태동했다. '사람이 곧 자연이다'라는 가치관에 따라 2002년 7월 프랜차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점망을 갖추게 되었다.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국내산 원료의 가공식품, 자연 화장품, 무공해세제 등을 갖춘 슈퍼마켓 개념의 매장으로 총 6백여가지 상품이 구비돼 있다. 초록마을의 인기품목은 오리쌀, 유황유정란, 각종 친환경 과일류다. 매장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개점하며 명절같은 특별한 날을 빼고는 연중 이용 가능하다.



■유기농산물 매장

매 장 명	지 점 및 연 락 처	특 징
인천우리농	연수점 : 763-0551 상동성당점 : 612-1771 부개성당점 : 518-4313 담동점 : 812-0571 주안3동성당점 : 867-5134	• 강화 등 지역농산물 • 소비자 프로그램 실시
푸른생활협동조합 (www.pureun.or.kr)	연수점 : 815-2311 남동점 : 466-2341	• 전용 회원공간 • 회원 프로그램 실시 • 조합원제 운영
참좋은생협 (www.cjcoop.or.kr)	계산동매장 : 541-9600	• 소비자 프로그램 실시
초록마을 (www.hanifood.co.kr)	공향신도시점 : 751-6262 용현점 : 886-6211 계양점 : 544-1262 부개점 : 362-6250 산곡점 : 506-6202 연수점 : 812-6162	• 슈퍼마켓형 개인매장
유기농녹색가게 신시 (www.shinsi.com)	연수점 : 815-6289 부평점 : 517-6249 작전점 : 545-6246 부개점 : 524-6233 송도점 : 833-6379	• 슈퍼마켓형 개인매장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왕이면 건강하게, 더 붙어 사는 우리, 좋은 것으로’를 표방하는 유기농 매장이자. ‘신시’라는 말은 흥익시장을 일컫는 말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시장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에서 비롯한 신시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철저한 체인점 형태의 개인매장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의 현장 구입이 중심이다. 각 매장은 1차 생산물부터 가공품까지 800여 가지에 이르는 물품을 취급하고 있다. 채소 야채 쌀 등을 비롯해 비누 용품 및 주걱 등 생활용품까지 그 범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물품은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수집하며, 전국 각지의 신시 지역물류센터를 통해 각 매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있다.



8년간의 유기농 사랑, 강화 농투성이 이야기

강화 농투성이 이근창(47·강화군 하점면)씨의 집 마당에 맑게 세수한 순무가 가을 햇살 아래 제법 카랑하다. 제철 맞은 순무가 제 고장을 대표해 입맛을 즐겁게 하는 요즘 특별하게 키워진 그놈이 각별하게 다뤄질 참이다. 갖가지 양념과 혼연일체되어 일정 무게로 담겨져 누군가의 밥상에 다소곳이 놓일 터. 이씨네 순무김치가 유독 눈에 든 것은 이곳이 강화이기 때문이려니와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된 때문이며 파, 마늘, 고춧가루 등 양념류도 모두 이근창씨가 손수 재배했다는 점이다. 재배하지 않아 시중에서 구입한 생강만 제외하고. 이제 곧 김장철인 탓에 곱게 키운 무와 배추도 고즈넉이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들도 물론 무농약 유기농 먹거리. 배추는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 절임배추 형태로 주부들을 맞게 된다. 메주콩도 빼놓기 아쉬운 상품이다. 잡곡류의 약 95%가 수입산이고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약품 세례를 한껏 받는 형편이고보면 국산 잡곡이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는 1만평의 추청배(일명 ‘아끼바리’)를 재배하는데 그 가운데 8천평 정도가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2천5백여평의 밭에서는 무, 배추, 콩, 고구마, 고추, 순무 등이 재배된다. 이근창씨 가족의 손길을 받은 농산물은 도시 ‘우리농’ 유기농 매장이자 우체국 택배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가 유기농법과 사랑에 빠진지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다.

‘먹는 것 갖고 쉽게 장난치는 세상, 무엇보다 서로의 신뢰와 신용이 생명이다. 아니면 이 짓 못한다’는 게 이근창씨의 주장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일손은 달리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내가 미쳤지’하는 마음과 함께 ‘확, 악을 뿌려버려?’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 유기농법이 그만큼 사람손 많이 가고 내몸 고달프고 돈 드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잘 살아보겠다고 농사 짓는데 지금 보면 가족 모두가 고생”이라며 너털웃음 한번 날리고는 “생명 사랑의 마음, 철학이 없다면 소득도 별로 없는 이런 농사 못짓는다”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판로, 유통(배송)문제에 있어 개별 농가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다.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근 매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도시 소비자에게 할 말도 많다.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다.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말이다. (011-9970-9781)



유기농 채식뷔페 바람이 분다 - ‘산·들·바람’



이름조차 가볍고 신선하다. 각종 유해 물질과 조미료에 찌든 입맛까지 바꾸고 싶어진다. ‘산·들·바람’은 유기농 순수 우리 농산물 음식을 만드는 채식 전문식당이다. 자연과 환경을 생

각하는 마음으로 산·들·바람의 음식을 만들고 있다. 음식에 쓰이는 채식재료는 (사)한국생협연대에서 90% 이상 공급받는다. 우리밀을 사용한 국수, 모듬전, 채식만두, 유기농 김치, 토종 도토리묵 등 재료는 유기농, 무농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 별도 매대를 설치하여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채식재료들을 판매하며 우리밀로 만든 과자도 준비해 놓고 있다. 20여가지 음식을 따듯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식사시간에 문을 열어 재료의 영양을 파괴하지 않는 조리법을 쓴다. 일회용품은 전혀 없으며 식당 인테리어와 정원이 친환경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물론이다. 낫선 음식과 맛에 화들짝 놀랄 수도 있으나 길들이기 나름. 삼삼오오 먹기 좋은 집으로 입소문이 난 덕분에 식사시간이면 배고픈 이들로 북적인다. 식당의 수익금 전액이 청천동 ‘맑은샘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쓰인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월~토 점심 12시~오후 2시 30분, 저녁 6시~8시 30분까지 음식을 판매하며 일요일은 정기휴일. 음식값은 어른 1만2천원,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는 7천원을 받는다. 저녁시간의 경우 40명까지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 부평구 산곡3동 부광고등학교 부근에 소재. 문의 _ 502-0633/ <http://organic.wind.com>

보는 맛, 먹는 맛, 대접받는 맛 - ‘아리아리랑’

음식의 품격은 먹는 사람의 복스러움이 우선이라면 만드는 이의 정성과 음식의 내용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아리아리랑’이 내세우는 신념만큼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과 10여가지 특수야채를 이용한 산채식을 선보이고 있다. 또 버섯, 다시마, 한약재 등으로 우려낸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 음식맛을 살리는데 인테리어도 한몫한다. 물레방아 도는 초가, 빨강고 노랗게 물든 유실수가 배고픈 나그네의 입맛을 돋우며 길잡이를 한다. 지금은 장신구가 되고만 그 옛날의 살림살이 도구이던 농기구와 잡동사니들이 아담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내부에 보기 좋게 치장되어 있다. 자리를 잡고 나면 한정식과 궁중요리가 대기중이다. 이곳의 죽염대 통밥은 인기 상한가. 다 소곳이 방짜유기에 차려진 음식도 보기 좋을 뿐 아니라 기분까지 우쭐하게 만든다. 각종 모임,



돌, 회갑연 등 잔치에도 인기가 좋으며 비즈니스를 위한 접대에도 그만.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70여대분의 너른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송도비치호텔 부근 소재. 문의 _ 833-0505 / www.ariarirang.co.kr

지역 최초 여성자활식당 - ‘내일을 여는 사람들’



음식점 이름 치고는 아련하지만 취지를 알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해 말 계양구청 맞은편에 문을 연 ‘내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역복지사업을 펼쳐온 ‘내일을 여는 집’(대표 이준모 목사)에서 집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을 위해 자활사업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다. 운영 수익금은 가정폭력 등의 어려움을 당한 여성들을 돕는 자활기금으로 쓰인다. 수익사업의 하나로 음식점을 하되 일반 음식점과 달라야겠다 싶어 식재료는 우리농산물을 쓰고 인공조미료는 쓰지 않기로 했다. 맛나는 요깃거리와 함께 전통차도 함께 내놓아 식사시간 외에는 차 손님이 줄을 잇는다. 취지가 좋다고 영성찬 분위기로 손님을 맞을 수는 없는 법. 소탈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에 오붓한 카페 분위기가 연상될 정도이다. 이곳의 메뉴는 유기농정식, 새싹비빔밥, 우리밀칼국수, 수제비, 콩보리비빔밥 등이다. 일요일은 문을 닫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는다. 문의 _ 543-6330

들어는 봤나, 채식자장면 - ‘태화원’

태화원의 채식요리는 중국요리로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쇠고기 같은 일체의 육류는 물론 생선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콩, 표고버섯, 두부, 참쌀, 감자 등으로 육류며 생선 맛을 내고 있다. 이를테면 콩으로 햄을 만들고 두부로 고기 맛을 내며 한천으로 해파리를 만들고 버섯 줄기로 생선을 만들어 내는 식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채식요리는 해파리냉채, 라조생선, 라조육, 탕수육, 팔보채, 삭스핀 등 수십가지에 이른다. 이집 주인이 대만의 채식요리에 감탄한 후 탄생시켰다는 채식자장면은 일반 자장면보다 들어가는 재료나 정성이 엄청나다. 우선 춘장을 볶을 때 닭육수 대신 다시마육수를 쓰고 양파가 빠지는 자리에 목이·표고·죽순·호박·오이·당근·감자·생강 등이 들어간다. 표고버섯의 줄기를 이용하면 고기 씹는 맛이 나면서 오히려 상큼한 느낌이다. 들어가는 재료가 만만치 않아서 값이 일반 자장면보다는 비싸다. 3천5백원. 경인전철 인천역 부근 차이나타운에 위치해 있다. 문의 _ 766-7688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빅 이벤트’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내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45개국 1천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 9월에 이 대회를 유치한 우리시는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기 위해 올 4월 대회 준비단을 구성한데 이어 5월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갖는 등 발빠르게 준비 작업을 해왔다. 그 첫 작업으로 대회의 상징이 될 엠블럼과 마스코트 그리고 메달의 디자인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지었다.

엠블럼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이니셜을 육상경기장의 트랙과 파도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후 대회 로고와 조합해 디자인했다.

마스코트는 문학, 선학, 학의 등 인천의 지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학(鶴)’을 기본으로 했다. 학이 육상경기에 적합한 긴 다리를 가진 동물이라는 점도 마스코트로 선정되는데 한몫 했다. 해양도시답게 학의 모양을 선원(船員)으로 형상화했으며 고매한 선비의 우아함을 표현하는 한편 몸에 근육을 묘사함으로써 건강함과 역동적 힘을 보여주고 있다.

메달은 어느 경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선사유적인 강화 고인들의 뿔개들을 응용해 디자인했다. 한편 대회 슬로건은 네티즌명 강나루(남동구 간석1동)가 응모한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가 최종 선정됐다.



문학경기장 새 트랙 “Gooooood~”

지난 11월 9일 오후 모리스 니콜라스(72·싱가포르 /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아시아육상연맹 사무총장과 객재영 인천육상연맹 회장 등 육상 관계자들이 내년 9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문학경기장 시설을 둘러보았다.

트랙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을 꼼꼼히 둘러본 니콜라스 회장은 “아시아 어느 도시의 경기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시설이며 특히 새롭게 시설을 갖춘 트랙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한 뒤 “경기장 주변 편의시설과 접근이 편리한 교통체계 등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얘기했다.

‘덩더쿵 덩덕’ 신명나는 봉사

장애인봉사, 노인봉사, 여성봉사... 봉사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이 닿는 대로 특정 분야에서 봉사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시에서 4/4분기 모범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최선옥(부평구 산곡동·47세)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부평구에 자리 잡은 ‘사회복지법인 손과 손’. 이곳은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갈 곳이 없는 지체장애아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 예림원과 장애아동 학교인 예림학교, 작업시설인 예림일터, 그리고 근로시설인 한인행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이면 덩더쿵 덩덕 신명나는 사물장단이 흘러나온다. 한마음 풍물놀이패의 연습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마음 풍물놀이패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선옥씨다.

최씨와 사물놀이의 인연은 1993년 우리시 여성문화회관의 사물놀이 강습을 받은 데서 시작했다. 1년 동안 강습을 받은 사물놀이팀은 94년부터 소망의 집, 은혜병원 등에 봉사차원에서 풍물공연을 나가게 됐고 최씨도 사물놀이팀의 일원으로 함께 했다. 공연이 거듭되고, 실력이 쌓이다보니 어느덧 사물놀이 강습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문화회관으로 사물놀이 공연이나 강습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 마다않고 찾아가 무료공연에 강습까지 해주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가 이제는 매일의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다. 화요일엔 갈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봉사, 수요일 화도진 도서관 사물놀이 교육과 내일을 여는 집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물놀이 교육, 목요일 만월사회복지관 사물놀이과 소망의집 사물놀이 교육, 금요일 한인행(예림원) 사물놀이 교육과 우리동네 공부방 사물놀이 교육... 나열하기에도 숨이 가쁠 정도로 그이의 일주일 스케줄은 뽁뽁하기만 하다. 함께 자원봉사를 나온 박영숙 씨는 “여기저기서 공연 요청이 오고 행사 있을 때는 몸으로 때우는 안 내 자원봉사까지 하다보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형편”이라며 거든다. 이렇게 여러 시설과 단체에서 사물놀이 강습을 하다보니 노인분들도 만나서 봉사하게 되고, 청소년교육에 장애인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봉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간식까지 챙겨갖고 다니면서 사물을 배웠는데요. 아이가 좀 큰 후로는 놀이방에 맡기고 풍물 강습을 다녔고, 토요일처럼 맡길 곳이 없을 때는 들쳐 업고라도 다니면서 봉사를 했지요.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봉사는 세상을 떠나는 날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최선옥씨

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이의 끈질기고도 꾸준한 봉사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나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은 엄마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해 반, 포기 반이 되었다며 씩스럽게 웃는다.

오늘 봉사를 나온 한인행에서는 1999년 4월부터 봉사를 했단다. 한인행 사무국장인 박상현씨가 대근육과 소근육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사물놀이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여성문화회관에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선옥, 박영숙씨가 봉사를 하게 됐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북을 칠 때 쿵쿵 소리만 내던 단원들은 1년쯤 후에야 자체공연을 할 수 있게 됐고 첫 공연을 하고 난 후에는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나고 표정도 밝아진 것을 느끼게 됐다. 지금은 장애인의 날 행사, 부평풍물축제 등 각종 행사에도 참가하는 베테랑 풍물단이 됐다.

“사는 날까지 봉사는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웃는 그에게서 신명나는 자원봉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글_ 정정애 · 사진_ 김정식

숨은 자원 봉사자 격려합니다

우리시가 분기별로 선정하는 모범 자원봉사자로 4/4 분기에는 개인부문에 최선옥씨를 비롯해 13년간 도서관 일어 통·번역 편집 및 열람지도 봉사를 해온 배원민씨와 농촌봉사활동, 밀반찬지원 봉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봉사한 윤명숙씨가 선정됐다. 한편 단체부문에서는 재가봉사활동을 펼쳐온 계양구의 민간자원봉사대와 급식조리봉사를 해 온 급식조리봉사단, 미용봉사를 꾸준히 해온 21세기 미용학원 이·미용봉사단 등이 각각 선정됐다.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⑩ 답동성당(성바오로 성당 · 사적 제 287)

120년 간 답동언덕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

그동안 직장에 매여 아이들에게 해
준 게 없어 미안했다는 엄마 정연미
(34)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요즘 두 딸 한도희(청천초등 4학년)
와 도현(2학년) 곁에 있으면서 아이
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탐방 틈틈이 머리 묶어주고 옷매무
새를 만져주고 노트도 뒤적여 보는
모습이 정다워 보인다.
평소 '인천엔 가볼만한 곳이 없다'는
부정적인 못질을 마음 속에 해 두었
던 엄마는 내 고장을 제대로 알지 못
하면서 사는 곳을 마냥 배척하기만
했던 굽은 못을 빼려 이번 탐방에 나
서게 됐다.

성당은 외과 수술 중

남은 은행잎마저 눈처럼 우수수 떨어지더니
이내 나무는 잎을 다 떨군 채 벌거숭이로 서
있다. 방과 후, 두 아이는 엄마 차를 타고 성당
주차장에 내렸다. 개신교 종교를 가진 도희네
가족은 성당에 처음 와 본다고 한다.

중구 답동 3번지에 위치한 답동성당은 도로
에서는 높은 축대 때문에 모습이 보이지 않지
만, 가톨릭회관 건물을 끼고 경사로를 따라 꺾
어서 오르면 차츰 성당의 종탑부터 그 위용이
드러난다.

현재 답동성당에는 주교관, 수녀원, 유치원
등의 부속건물이 있고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
시오 주교가 관장하고 있다. 평신도 대표를 맡
고 있는 정기회(요셉, 50) 사목회장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 100여 년 전의 과거 속으로 일행
을 안내했다.

툼니 돌아가는 소리와 쇠망치 두드리는 소
리, 용접하는 소리... 곳곳에서 소음이 흘러 나
왔다. 성당이 조용해서 기계음 소리는 더욱 유
난스러웠다. 그 소리도 오래 듣다보니 별레 울
음소리처럼 느껴진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내
년 2월쯤 마무리된다고 한다.

“좋은 언제 쳐요? 한번 듣고 싶은데”

“당겨서 치는 종을 2년 동안 못 쳤어요. 탑
위 기둥들이 무척 아름다운데 금이 가고 부식
돼서 종을 치면 진동 때문에 균열이 더 심해지
기 때문이지요. 십자가 밑에는 박달나무를 납
으로 씌워놨는데 벗겨졌고, 창문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흠창이다 보니 냉난방이 안돼서 그
부분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화재다
보니 불편해도 아무 때나 성당측 뜻대로 수리
를 할 수 없지요. 문화재청과 인천시, 구청 등
의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안전진단을 한 뒤
보수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고딕과 르네상스식의 앙상블

서구식 성당으로 세워진 답동성당은 1895년(고종32년) 8월에 건축에 착수해 2년만인 1897년 (광무1)에 완공했다. 1934년 4월에 제 4대 본당 신부로 임명된 드뇌신부에 의해 개축공사를 시작해 4년 2개월 만인 1937년 6월 30일에 연건평 307.2평, 단층 벽돌조로 다시 고쳐 지었다. 옛 성당건물을 세워둔 채 그 외곽을 벽돌로 쌓아 올리는 어려운 공사였다. 그 후에도 계속해 본당의 개축공사가 있었다. 마침내 1981년 9월 25일, 역사성과 보전성을 들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史蹟) 제 287호로 지정되었다. 인천시내에 유일하게 있는 국가사적이다.

답동성당은 서양미술을 도입해 지은 인천 근대 건축 제 1기에 속하는 건물로 고딕(Gothic)과 로마네스크식이 어우러져 예술적 가치가 가장 큰 건축물이다. 건물의 외형은 동서양 절충양식으로 반원 아치창문을 주제로 돔을 얹고 장미창을 마련했다. 건물 중앙에 큰 탑을 두고 경사진 지붕을 날개로 단 다음 끝부분에 장식적인 작은 탑을 둔 형식이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으면서도 벽이 얇은 건물들, 둥근 기둥과 리브(rib)로 이루어진 내부구조는 수직감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본래 의자 없이 미사를 드렸으나 1973년 인조 대리석바닥으로 개조하여 의자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2



1 성당주위를 돌며 설명을 듣고 있다.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옛 박문초교 교사 2 스테인드글라스와 마리아상 3 성모마리아상 앞에서의 설명 4 '뽀족 첨탑은...' 엄마도 두 딸에게 열심히 설명한다. 5 '우리가족,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6 지나가던 수녀님들도 기꺼이 미소로 함께 김치 찰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위일체

성전 안으로 까치발을 들고 들어가 봤다. 평일 낮인데도 엄숙한 미사가 진행 중이었다. 내부는 천정이 높으면서도 기둥의 굵기가 기늘고 섬세해 웅장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멋을 함께 갖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본당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를 내고자 양쪽 벽을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로 창을 냈다. 무늬는 노아의 방주, 성령강림 등 신·구약성서의 중요 사건을 비구상으로 꾸몄다. 당시 전량 수입에만 의존 해오던 색유리를 자체 생산한 색유리로 1년여에 걸쳐 디자인하고 시공함으로써 더 큰 의의가 있다. 미사를 집전하는 제대(祭臺) 윗부분의 창문은 장미문양을 양식화하여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으로 삼위일체를 상징한 것이 이채롭다.

엄마와 두 딸은 손을 모아 잠시 기도를 드렸다. 도회는 스테인드글라스를 갖고 싶어 했다. 기술자인 아빠의 손재주를 닮아 작은 알갱이 비즈 공예부터 벽돌블럭 집짓기까지 조립하거나 창작하길 좋아한다. 목이 아플 텐데도 그 아름다운 창을 올려다보느라 눈을 떼지 않았다.

몇 부리기에 관심이 많은 동생 도현이는 책 읽으면서 연기하기, 중얼 중얼 대사하며 연기자 흉내를 내는 일이 취미다. 그런 수다쟁이가 엄숙한 성당에 오더니 기운이 꺾인 듯 하다며 엄마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엄마는 요즘 방과후 아동지도사 시험 준비에 한창 바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장애인 차량봉사도 한다. “내가 사회에 어떻게 쓰여 질까?” 탐방 내내 엄마의 머리 속을 맴돌았던 질문이다.

일행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和睦祭)로 희생시킨 예수님의 향취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 성당 주변을 둘러보았다. 성당 뒤뜰, 찬 기운 속에 가려린 생물들이 구석구석에 있다.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는 매발톱꽃과 수련, 그리고 아직 초록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름모를 식물들이 낮게 몸을 숙여 기도한다. ‘이 추위에 고통 받는 이가 없게 하소서!’

글 _ 조은숙(《부평사람들》기자) · 사진 _ 김성환

서양 종교 씨앗 뿌려진 세곳

조선 말 서구의 문물이 밀려들어오면서 종교도 함께 들어왔다. 인천은 개항과 동시에 선교의 ‘베이스캠프’가 되었다. 인천 시내에는 개신교, 가톨릭, 성공회 등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의 성전이 삼각점을 이루며 우뚝 세워져 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편첼러 목사 부부가 제물포항에 내려 내리마루에 우리나라 개신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 후 그곳에 내리교회 머릿돌이 박혔다. 인천에서 천주교 선교 활동이 시작된 것은 고종 26년(1889년)부터이다. 답동언덕에 세워진 성 바오로 성당은 주교좌 성당으로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1890년 9월 29일, 한국성공회 초대 주교 고르페는 송학동에 한국최초의 성공회교회인 성 미가엘교회(현 성공회 내동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에 들어갔다. 함께 온 청년의사 랜디스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다 병을 얻어 숨을 거두었다. 교회가 있는 언덕은 한때 ‘약대인산(藥大人山·후에 약대이산으로 와전)’이라고 불렸다.

유리상자 크리스마스 콘서트

매력적인 화음을 자랑하는 유리상자는 많은 콘서트 경험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애드립과 재치있는 공연진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다.

이번 공연은 유리상자의 최대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를 비롯해 유리상자의 공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코너 '노래를 불러 드립니다'처럼 팬들이 골라낸 노래들을 즉석 통기타 반주에 맞춰 들려주는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된다.

박승화·이세준 두 남자의 화음을 넉넉하게 담아내는 유리상자의 18번째 사랑담기 크리스마스 인천콘서트는 마음까지 쓸쓸해질 수 있는 추운 겨울의 길목에서 사랑하는 연인,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_ 12월 25일(토) 오후 3시, 7시

장소 _ 인천종합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5,000원 S석 44,000원

예매 _ 엔티켓 (www.enticket.com)

문의 _ N 엔터테인먼트 (818-5665)



뮤지컬 난타

〈난타〉는 리듬을 소재로 드라마화한 작품으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Non-Verbal Performance(비언어극)'이다.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를 서양식 공연양식에 접목한 또 다른 실험이다. 드라마 기법 도입을 통해 사물놀이가 지닌 집단 유희적 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뉴빅토리 극장에서 장기공연에 돌입해 첫 공연부터 499석을 가득 메운 현지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것은 물론 전회 입장권이 매진되는 호조 속에 현지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난타. 바로 그 난타(Cookin)가 올 겨울을 맞이하여 인천을 두드린다.



일시 _ 12월 18일(토) 오후 4시, 7시 / 12월 19일(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583-2361-2)

티켓 _ 1층 R석 40,000원 / 2층 S석 30,000원

예매 _ www.ticketlink.co.kr (1588-7890)

문의 _ 창라이프 (433-6070)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이솝우화에 버금가는 세계의 고전 '아라비안 나이트' 원작을 토대로 한 어린이 뮤지컬이다. 알라딘이 램프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과정을 웅장하고 화려한 모험 이야기로 구성하여 극적 재미와 감동, 그리고 교훈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한다.

이 작품은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에 물든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소중함, 우정, 용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의 기쁨을 새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공연장소 및 일시 _

계양문화회관 12월 10일(금)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 12월 11일(토) 오후 1시, 2시 20분, 3시 40분

종합문화예술회관 12월 29일(수) 오후 3시, 4시 30분, 6시 30분 / 12월 30일(목) 오전 10시 40분, 오후 3시, 4시 30분, 6시 30분

티켓 _ 일반 10,000원 할인 5,000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무료입장)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016-2500-560)



극단 산만 까?까!까...

2004년 인천 연극제 작품상 및 희곡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젊은이로부터 나이든 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관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중적 연극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 젊은이의 사랑에 대한 좌절, 군대에 관한 짧은 이야기, 청소년의 성에 대한 궁금증, 중년의 아픔, 노년에 눈뜬 사랑 이야기 등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러나 누구나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일시 _ 12월 2일(목) ~ 12일(일) / 평일(월~금) 오후 7시 30분 / 주말(토, 일) 오후 4시, 7시 30분

장소 _ 학산소극장(용현동 소재)

티켓 _ 일반 10,000원(회원 : 7,000원) 청소년 7,000원(회원 : 5,000원)

문의 _ 남구학산문화원 (866-3993, www.haksanculture.or.kr)



The Memory of 2004 with Ray jung

고품격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는 레이정의 음악은 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도교적 사상과 정서를 담아 깊이를 더했으며, 외적으로는 동서양의 음악 양식과 기법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것이다. 단순히 동서양의 양식을 조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만의 독특한 오리지널리티는 그를 왜 한국적인 크로스오버 음악의 개척자로 불러야 하는지를 수궁하게 한다.

영화 〈그녀 이야기〉,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행복한 이 아침〉, CF음악 EF 소나타, 태평양 라네즈 등 다양한 매체에서 알게 모르게 접했던 레이정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한해를 마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에는 레이정과 함께 해금, 향피리, 첼로 바이올린, 드럼, 기타, 베이스, 키보드, 보컬 등 다양한 동서양의 악기들이 어우러져 진정한 크로스오버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_ 12월 10일(금) 오후 7시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일반 5,000원 청소년 3,000 **문의 및 예약** _ 505-5995

가족 뮤지컬 스크루지 아저씨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 스크루지 아저씨. 해마다 열리는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에서 어김없이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 뮤지컬은 스크루지 아저씨의 개성있는 캐릭터와 크리스마스 정경의 풍부한 묘사, 그리고 수백 년을 거듭해도 영원히 남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일시 _ 12월 11일(토) ~ 12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12,000원, S석 10,000원, A석 8,000원

문의 _ 극단 중원극회, 무지개 극장 ((02)3474-4620, 010-7675-2005)

극단 동이 해방촌 사람들

〈해방촌 사람들〉은 원작인 '리투아니아'(루퍼트 부르흐 작)의 배경을 한국전쟁 직후의 한 외진 마을로 끌어들이는 리얼리즘 연극이다. 해외극의 한국적 창작작 속에서 인간의 존재, 그 실존의 문제를 파헤쳐 보고자 하는 극단 동이의 문제적 작품이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않은 어느 추운 겨울 날 외진 마을, 황가네 집에 한 손님이 찾아드는데...

일시 _ 11월 30일(화) ~ 12월 31일(금) /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4시, 7시 / 일 4시 (월요일 쉼)

장소 _ 소극장 가운누리(답동 가톨릭회관 옆)

티켓 _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단체 5,000원)

문의 _ 765-9756 (www.gaonnuri.org)



예쁜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예쁘다

‘혹시 우리 자매의 이야기가 아닐까?’ 내 자신에 대한 순간적인 성찰과 주부 극단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소극장이 있는 수봉공원 길을 올랐다.

공연이 시작되자 두 자매의 이상 경쟁심리가 불러온 악몽 같은 상황과 성격적인 대립, 과거 사건의 회상과 성장과정 속에서 표면적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구도의 상황변화가 객석의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무대 위의 배우가 살아나며 시간의 흐름 속에 극본의 탄탄함과 15년간의 인천주부극회의 경륜을 말해주듯 주부인 배우들의 실력은 기대 이상의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이 소극장에서 만난 어느 연극보다도 배우와 연출 그리고 관객의 상상력을 유출시키는 창조적 참여 속의 호소력 있는 도약대, 여기에 무용과 노래, 피아노 연주의 감칠맛 나는 흥미- 객석까지 숨을 죽이는 그 하모니의 호흡은 무대와 객석을 최상의 상황으로 이끌어 갔다. 주부 배우들의 숨씨에 작은 신음과 같은 감탄이 배어 나왔다. 객석의 긴장감과 작은 소리조차 거부하는 몰입 속에 감추어진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의 공포, 스릴까지 이 무대는 포용하고 있어 놀라웠다.

마음까지 파고들 것 같은 조명 속에 심리적인 갈등이 클로уз업 되며 한없는 경쟁 심리와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의 편애, 힘에 대한 집착, 욕망, 양심 등 인간의 추악함이 극대화된 장면이 이어졌다. 이날 블랜역의 노정희, 제인역의 곽은숙, 바바라역의 채혜숙, 그리고 에드윈역의 이정희의 연기는 극중 캐릭터를 잘 표현해 낼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과 동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내 자신의 상황에 전이되는 무대를 발견하고 가슴이 떨려왔다.

‘혈연이라는 사이는 정말 얼마나 끈끈하고 이상한 인간관계일까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이성을 잃고 휘감겨 빠져들게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이니까요’란 블랜의 독백처럼 우린 스스로 혈연이란 관계로 부부간에 자식과 또 형제 자매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자신에게 묻게 된다.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하며 그 틈틈이 연극 무대에 대한 갈망을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충족시켜가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부럽게 느껴진다.

아마 이 극을 무대에 올리리기까지 가정에선 주부로 또 무대에선 배우로 슈퍼우먼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어려움과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단원들 사이의 돈독한 우애가 오늘날의 내실 있는 극단으로 성장되어 가는 열쇠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예쁜 눈으로 보면 미운 사람도 예뻐진다’는 극중의 대사를 다시금 되뇌이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길 바라며 이 날 무대에서 열연한 네 사람의 게스트와 연출, 음향, 조명, 의상, 분장 소품 등 여러 분야에 손색없이 함께 한 스태프 주부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혈연이라는 고리를 벗어날 수 없듯이 주부극회의 고리가 굴레가 되지 않고 율타리가 되어 삶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삶의 동행인이 되길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수봉공원길을 내려 왔다.

글 _ 이정순 (인천의제 문화예술 모니터)



우리시 지정 맛이 있는 집

탐 라 도 의 전 복 족

제주바다는 거칠어서 전복양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에서 나는 전복은 모두 무공해 자연산이다. 그렇다고 전복죽을 먹고 싶을 때마다 제주도에 갈 수는 없는 노릇. 제주 토속 음식 전문점인 탐라도에 가면 적어도 음식에서 만큼은 제주에 간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음식은 독특한 문화만큼이나 색다른데, 대체로 조리 방법이 단순하고 자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탐라도의 전복죽은 제주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전복 고유의 맛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툇이나 모자반 등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밀반찬도 정갈하다.

전복죽 8,000원

연수구 동춘동 813-6

832-5455

80석

5대



하 여 울 의 코 다 리 찜

점심시간 조금이라도 늦으면 밖에서 서성대며 기다려야 할 만큼 하여울은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하여울의 주특기는 코다리찜. 콩나물과 미더덕, 양파 등 온갖 야채가 코다리와 함께 시뻘겋게 버무려져 나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무척 매워보이지만 실상 한 입 넣으면 송골송골 코 끝에 땀이 맺힐 정도이다. 코다리가 이렇게 연했나, 씹을 정도로 부드럽게 씹히는데 이 집만의 노하우로 특이한 요리과정을 거치는 덕에 뼈까지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다. 동해에서 나는 명태만으로 요리하는 하여울의 코다리찜은 그 머리를 삶아 낸 육수로 요리한 다는데 맛의 비결이 숨어 있다. 코다리찜을 시키면 찜과는 별도로 코다리 머리와 바지락을 넣어 끓인 탕이 덩달아 나온다.



코다리찜 10,000원(2인)

남동구 구월3동 1094-10

432-6275

45석

10대



이곳에 오면 휴식과 즐거움이 있다

“바람은 포근한 엄마 / 길잃은 아이가 울고 있을 때 /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듬어 주고”

■ 청소년 Drop-in Center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가출의 메카’로 불리는 부평. 그만큼 유흥가가 밀집해 있고 허전한 맘 채울 무엇이 분명 있을 듯하지만 마음의 짐 편히 내려놓을 공간은 그들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저 어느 귀퉁이 찾아 같은 처지 동병상련하며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인천지하철 부평역 대합실 한편에 아담하게 동지를 튼 ‘인천광역시 청소년 Drop-in Center’가 바로 한 모금의 샘물, 엄마의 손길과 같은 바람이 되어 준다. 세상을 막막하고 두렵게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18평이 조금 안되는 드롭인 센터 공간이지만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이야 그에 몇

곱절이다. 거리를 배회하거나 학교, 집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들이 누구나, 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배고픔을 채워줄 간식과 편안한 휴식도 청소년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곳은 다재다능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은 물론 각종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정보도 제공하며 책과 비디오도 보여 준다. 결구임에 신경쓰거나 눈치를 살필 필요는 물론 없다. 센터 책임자인 이영복 상담실장의 임무가 나이 어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지난 9월 21일 개소 이후 40여일이 지난 요즘 ‘단골’도 꽤 생겼다고 자랑이다. 문 열기 전부터 기다리다 늦게까지 머문단다. ‘편안하다, 선생님이 잘 해준다, 컴퓨터와 간식이 있어 좋다’ 등의 이유로 한달 쯤 매일 방문하는 아이도 있다.

매일 와도 좋으니 그저 찾아와만 주기를, 다른 곳에서 어슬렁거리느니 이곳에서 마음의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쉬어 가기를 바라는 맘이 이 실장의 요즘 마음살이다.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어른인 이곳 책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있다. 아이들을 우선 이해하고 필요 이상 성급한 개입은 금물. 스며들듯 아이들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조심성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어른이 찾기 힘든 이곳을 아이들은 잘도 찾아 든다니, 아이들은 제 머물 곳, 쉴 곳을 용케도 알아보는가 보다. 드롭인 센터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활짝 열어둔다.

문의 _ 드롭인 센터 (516-1318), 부평역사 지하 1층



■ 성문화센터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간 하나 더. 월드컵축구경기의 열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한 문학경기장 지하 1층 어느 곳에선가 우리가 궁금해 하는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단, 잘못된 호기심, 엮기는 사양!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으로서 오감을 통한 성교육 문화 체험학습과 과학적인 성지식 습득,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문화센터’가 바로 그곳. 바람직한 성교육과 성적 자기성찰을 주제로 본격적인 전문시설이 들어서기는 인천에서 처음이다. 청소년 성교육과 부모교육을 전문으로 해온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며 2명의 전문가가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개소한 만큼 유사한 교육시설에 비해 최신 설비와 기자재, 참신한 교육적 아이디어,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다. 이곳의 교육원리는 흥미와 놀이, 배움으로 요약된다. 함께 풀어나가는 성, 성 생각 나누기, 표현하는 성, 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에 대한 유쾌한 놀이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곳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성문제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험형 구성이라는데 있다.

어머니의 자궁입구를 상징하는 둥그런 문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이 만남의 방. 체험관을 순회하기 앞서 성에 관한 영상물 상영, 정보검색으로 가볍게 몸을 푼다. 이어 탄생의 방으로 가면 공감각을 최대한 동원한 학습 기자재로 생명의 모든 것을 온 몸으로 느낀다. 남·녀 신체 모형은 물론 실물모양의 성기를 꾸며 놓고 서로의 차이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에까지 안내한다. ‘성장의 방’에서는 자신과 이성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오해나 편견, 무지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밖에 역할극, 나 표현하기, 신나는 몸풀이로 구성되는 ‘표현의 방’, 실제 가정생활 공간을 가상으로 꾸며 놓고 행복한 양성평등 가족문화를 실습해보는 ‘행복의 방’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자신의 달라진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인이나 집단상담도 가능하며 부모교육, 예비 부부 성문화 캠프, 청소년 성문화 캠프 등의 특별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열흘전에 신청해야 하며 청소년 2시간 30분, 아동 2시간 가량의 교육시간이 소요된다. 학교를 통한 한 학급 단위 40명씩 교육이 이뤄지며 가족단위 또는 개인 교육은 불가능하다. 신청가능 시간은 월~토요일 10:00~12:30(1부), 14:00~16:30(2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 _ 성문화센터 (446-1318), 문학경기장 지하 1층



글 _ 지영일 · 사진 _ 김정식

학대받는 어르신들의 피난처, 노인학대예방센터

세월이 서럽기는 소외되고 학대받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효행을 지고의 덕목으로 내세우던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의 현실은 “설마, 부모인데 그렇게까지...”라는 말을 무색케 할 만큼 심각하다. 며느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구타를 당하던 박모(76) 할머니는 아들부부에 이끌려 시골폐가에 버려졌다가 노숙자로 전락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냉대속에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사례는 새삼 애깃거리도 못된다.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달 15일 남동구 간석3동에 ‘인천광역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맡겨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상담원 4명, 사무원 1명 등 6명이 배치돼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 운영, 신고접수시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조치, 전문가 상담, 학대받는 노인 지속관리와 학대예방사업 추진, 학대 관련 정보 네트워크화와 예방 홍보사업을 벌인다. 또한 실태조사 및 예방 캠페인 등을 벌이고, 피해노인 일시 보호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정희남 소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하지만 생의 마지막부분을 행복하게 살아야할 권리가 있는 노인에게 본 센터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이라고 말한다.

전화나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문의 _ 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426-8792~4)



굿인cheon 굿뉴스

청라음식물 자원화 시설 정상가동

지난 5월 악취문제로 잠시 가동을 멈추었던 청라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정상화되어 가동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하루 최대 처리량 100톤을 전량 반입,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05년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업체 (주)대우건설은 지난 6월 28일부터 사업비 25%에 해당하는 12억원을 투자해 탈수기, 농축증발기, 응축기, 건조기 등 성능 보완 공사를 완료, 90% 정도의 악취를 잡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_ 청라음식물쓰레기소각장 (581-3007)

품질우수제품 30개 선정

인천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운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선수급 30개 제품이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우리시에 소재한 35개 업체 43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된 (주)세원리테크의 차선규제블럭을 비롯하여 30개 제품이 바로 그것. 품질우수제품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시는 지정 제품에 대해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지정서를 교부하고 시에서 출원한 품질우수제품 추천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권한을 3년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제품홍보를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440-2892)

바다쓰레기 이제는 'NO'

우리시가 어족보호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연평어장을 비롯해 내년부터는 백령·대청어장과 서해 접경지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백령어장 357㎢와 대청어장 1천658㎢, 강화도 등 민간인통제선 일대 해안가 등이 수거 대상지역이다. 우리시는 약 30억원을 들여 금어기인 내년 7월 8월 사이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기로 하고 3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화도 등 접경지역 바다쓰레기 수거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올 7~8월 사이 총 20억원을 들여 현지주민과 공동으로 연평도 여장에 가라앉아 있는 800여톤의 폐쓰레기와 소래포구 주변에서 700여톤의 육상방치쓰레기를 수거했다.

문의 _ 시 수질보전과 (440-3643)

대련시 조형물 '중국결' 제막



우리시는 지난 11월 8일 10:30분 중국 夏德仁 대련시장 등 대련시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련시의 조형물 '중국결(中國結)'에 대한 제막식을 중앙공원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 80여명과 대련시 방문단이 함께 하였다.

이번 조형물은 우호도시 결연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양 시간의 조형물 상호 교환계획에 의해 이뤄졌는데 지난

8월 인천시가 조형물 '꿈의 항구'를 대련시 성해공원에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련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방인하여 대련시측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거행한 것이다.

대련시의 조형물 '중국결(中國結)'은 양도시 관계의 상서(祥瑞)로움을 기원하고 영원한 우의와 평화를 형상화했으며 인천시의 번창과 시민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대련시민의 희망을 표현했다.

문의 _ 시 국제협력팀 (440-2843)

우리시 수돗물 '안전'

10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우리시 수돗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수장 수질검사 항목 55개, 수도꼭지 5개 항목 등 모든 검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다. 인천 시민은 언제든지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문의 _ 상수도사업본부 (870-9293)

외항선원이 인천 문화, 관광 홍보대사

우리시는 인천항에 정박중인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환승투어를 실시, 장시간 항해에 따른 무료함 해소는 물론 질 높은 관광서비스로 인천의 문화 및 관광명소를 전세계에 홍보기로 했다.

외항선원 환승투어는 11월 11일과 25일 2회(80명)에 걸쳐 실시됐으며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강화지역의 전등사, 강화역사관, 고인돌, 고려귀지 등 문화유적지와 강화특산물센터, 신포시장 등 기념품 및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을 돌아봤다.

우리시는 2회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에는 정기적인 환승투어(월 2

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용객 추이를 감안하여 노선의 다양화, 투어의 유료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이번 환승투어를 통해 인천의 역사문화와 관광명소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에는 1일 24척 정도의 외항선원이 입항하여 2~3일 정도 체류하고 있으며, 1일 330여명이 항외(시내)로 출입하고 있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3323)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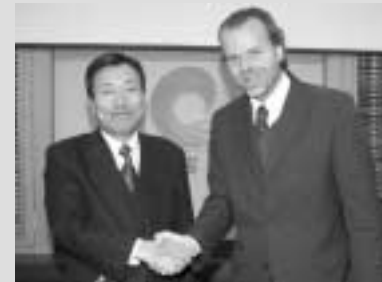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부산광역시의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됐다.

금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혁신박람회는 정부차원에서 산·학·연·관 등 혁신주체가 역량을 키우고 그동안의 지역별, 파트너 결합형태별 혁신성과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상호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시는 행사기간중 인천전시관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 송도정보화신도시,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상과 Penta-Port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중심구가 실

세계는 인천으로, 인천은 세계로



김동기 행정부시장이 칠레 비오비오주 대표단을 맞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 기구 출범식에 참석한 안상수 시장 (왼쪽 세번째)

우리시가 최근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외자 투자확대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놓는 자리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최근 칠레 비오비오주 도시개발장관·수산장관외 8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 수출상담회 및 산업시찰 등의 행사를 가졌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 방인한 칠레 대표단은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수출상담회를 가진후 남동공단본부 시찰, 인천국제공항, 청라생활폐기물처리장, INI Steel, GM대우 및 대우중공업 산업시찰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GM대우, 동서식품, 린나이코리아, 동일레나운, 셀트리온 등 50여 관내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CEO를 초청, 우리시의 외국인투자환경 및 투자유치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비전소개 영상물 상영 및 경제자유구역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참석자들이 경제자유구역 및 시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참석 CEO의 건의사항 개진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중국 쟁원웨(張文岳) 요녕성장이 인천을 첫방문하기도 했다. 쟁요녕성장을 비롯하여 천테신(陳鐵新) 단둥시장 및 요녕성정부 대표단 21명은 10월 21일 내인하여 동북3성의 제조업기지 부흥 정책을 설명하며 한국기업의 요녕성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현재 요녕성과 인천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지속적 발전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대상을 찾아다니며 세일즈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지난 11월초 인천항을 세일하기 위해 방문단이 중국을 찾았다. 인천항 이용 확대와 경제자유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5일간 중국 위해, 연태, 청도를 세일즈단 18명이 차례로 돌았다. 이들은 방문기간 동안 산둥반도 항만의 중국 화중, 포워더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천항 이용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11월 16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한·중·일 10개 도시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를 정식 발족시켰다. 이 기구는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정책제언, 지역간 네트워크 기능은 물론 환황해 지역의 활력을 살려내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시장은 11월초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투어에서 모건스탠리측의 투자의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중인 미국 게일사의 한국 합작법인인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의 주주로 참여해 국제업무도시건설 자금을 적극 지원기로 했다.

현 발전 잠재력을 중점 홍보했다. 특히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강화 농경문화관 운영과 농촌체험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 야외에서는 전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화특산물 순무김치를 홍보, 판매했다.
문의 _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702)

인천환경시설공단 설립추진

지역내 각종 환경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합리적 관리를 전담할 ‘인천환경시설공단’이 내년 7월 설립된다.
우리시는 인천지역 하수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시설과 관련사업을 통합 관리 운영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시설 관리운영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정수요의 관리를 전담할 공단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환경시설공단 설립안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상태며 내년 3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단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3월부터 공단설립 시까지 공단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사가 설립되면 환경시설 관리는 물론 간선도로 진공·물청소, 가로수 관리, 지

역환경개선 연구사업 등도 펼쳐게 된다.
문의 _ 시 환경보전과 (440-3512)

옛 시민회관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인천시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부지가 지역 문화의 메카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 시민회관 건물을 헐고 공원으로 조성한 옛 시민회관 쉼터를 종합문화광장으로 새롭게 꾸미기로 했다.
시는 이 곳을 공연시설, 미술관, 전시장, 소극장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과 함께 상업시설을 유치한 ‘문화중심지’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새로운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구도심균형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문화예술과 440-3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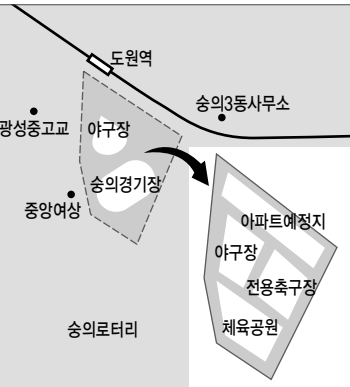
‘편리한’ 버스정류장으로 새단장



기존 버스정류장의 모습이 새롭게 바뀐다. 우리시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대해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대화된 승강대와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을 설치하는 등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을 펼친다.
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설된 승강대를 오는 2006년까지 전지역에 설치하고 2007년까지는 버스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시간과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을 구축한다.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10억3천만원을 들여 중구 11개소와 동구 10개소, 남구 42개소, 연수구 36개소 등 모두 99개소에 승강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내년 8월까지 부평구와 계양구, 남동구, 서구 등에 10억3천만원을

구도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남구 송의동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일대가 ‘공원형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기존 송의 종합운동장은 1920년에, 야구장은 1964년에 건립돼 그동안 지역 체육의 메카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물이 낡아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우리시는 송의동 180-6 종합운동장 일대 2만6천200여평에 대해 2007년 말까지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축구장과 생활체육공간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기존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시설을 철거키로 했으며 사업비는 25층짜리 700가구의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지정했으며 도개공측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송의동과 도원동 일대의 침체된 상권 분위기가 살아나고 구도심도 활기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체육진흥과 (440-3282)



들여 108개소를 설치하고 3단계로 2006년까지 인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또는 교체를 완료하게 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2903

김장철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우리시는 월동기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를 대상으로 월동기 김장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추진내용으로는 월동기 김장수급안정 대책기간 중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류에 대한 도매시장의 물량을 평시 대비 20% 이상 확대 공급하고, 구월·삼산도매시장의 휴업일(11/28, 12/5)에도 정상 개장하며, 개장(영업)시간도 현행 02:00~15:00에서 02:00~17:00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김장채소 수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군·구,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련기관에 김장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 구월농산물도매시장(426-8303~4) <http://guwol-market.incheon.go.kr>
• 삼산농산물도매시장(280-0840~3) <http://samsan-market.incheon.go.kr>
문의 _ 농정과 (440-2974)

반상회가 현대화된다

우리시는 이웃 주민들 간에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어 오던 반상회가 그 역할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

년부터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전달율을 높이기 위해 상가와 다중 이용시설에 반상회보를 확대 배부키로 하고 노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노인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또 통·리·반별 E-Mail 등 전달 체계를 확보하고 사이버 반상회 시행을 위해 군·구 홈페이지에 반상회 창을 개설하여 월별 중점 홍보 시책의 내용을 게재하고 반상회시 발생하는 주민건의 사항 등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37)

수변공간 갖춘 중앙공원2지구 준공



사업으로 추진되던 중앙공원 2지구 준공식 및 시계탑 제막식이 11월 18일 개최됐다. 무허가 건물, 공장 등이 집단적으로 난립되었던 지역이 시민휴식처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중앙공원의 전체면적은 357,180㎡로 9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88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47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다. 지난 2001년까지 올림픽 기념공간, 문화공간, 교통공간, 휴식 담소공간 등 7지구를 도심 녹지 축을 잇는 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였고, 이날 준공식을 갖는 2지구의 면적은 41,756㎡(12,630평)로서 50여동의 무허가 건물 등이 있던 지역이다.
중앙공원 2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지형을 활용한 벽천, 계류, 분수 등을 설치하여 물과 녹지가 어울어지는 수변공간

을 연출하였고,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가깝게 찾아와 건강증진, 휴식,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_ 동부공원사업소 (450-7252)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개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가 11월 15일 오픈했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정보화 및 인터넷 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육성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수단의 확충을 위해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consumer.incheon.go.kr>)를 개설했다.
주요 메뉴로는 소비생활센터 소개, 소비자 뉴스, 소비자 경보, 온라인 상담실, 자료실, 물가정보, 위해정보신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793)

동절기 기초생활 보장 강화



우리시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따뜻한 이웃보살피기에 적극 나선다.

우선 저소득층 긴급 보호의 일환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2,358가구(수급자 추가선정 911가구, 차상위 급여 533가구, 기타보호 914가구)를 추가 보호를 실시하였다. 차상위층 한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1,380가구에 한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학대, 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1,300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9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겨울방학기간 동안에도 결식아동들의 지속적인 급식 지원은 물론 급식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3,000명과 긴급급여 및 차상위계층 자녀 1,270명에게도 급식소 급식, 식당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등을 통하여 동절기 급식을 확대 지원한다. 한편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봉사단체를 통한 대대적인 김장 담궈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52)
---	--	---

의 정 소 식

인천광역시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시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5일 의회사무실 4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했다.
박승숙 의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구현함은 물론,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도우미를 배치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그 동안 각 위원회 사무실을 전전하며 불편을 겪어 왔으나 민원상담실 설치로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민원과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민원해소에 대폭 기여할 전망이다.

제13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 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15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기 행정부시장과 나근형 교육감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시정연설 및 200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촉진코자 추연어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남북교류 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11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하였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의하게 된다.

제2차정례회 주요의사 일정을 살펴보면

- 2004년 11월 15일(월)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에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인천광역시의회남북교류촉진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4일 폐회 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인 제13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는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뉴스



‘그린피아’ 송도신도시 조성

송도신도시가 녹색도시로 꾸며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0년까지 1천만본 이상의 나무를 심어 최첨단 생태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나눠 송도신도시 전역을 그린피아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2006년까지 215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도 1시가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야조공원 등 2·4공구에 19만2천853본의 교목류와 87만2천803본의 관목류, 190만본의 다년생 지피식물 등을 심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략지역에 대한 집중 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3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할 송도 1시가지 공동주택 주변 근린공원 등에 수목을 우선 심고 시설물은 나중에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신도시 그린피아 조성에 필요한 수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4공구와 1공구 지역 유흥지를 묘포장으로 조성, 1m 이상의 해송 8만2천본을 식재, 이식 가능한 시점에 녹지공간 조성지역에 심을 계획이다.
2·4공구와 1공구 지역에 조성되는 묘포장은 염해 등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목을 자체 생산하고 이 곳에서 환경적응력이 높은 수종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송도신도시 ‘국제 컨벤션센터’ 기공식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초대형 ‘국제 컨벤션센터’가 오는 2007년 말까지 들어선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11일 송도지구 1공구 국제비즈니스센터 부지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현재 경제부총리, 박승숙 시의회의장, 모건스텐리제일사회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외 인사, 시민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1천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07년 12월 완공할 예정인 국제컨벤션센터는 6천 712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된다. 건축 연면적만 1만2천653평에 달한다.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 1억2천만달러를 투입하는 국제컨벤션센터는 초현대식 건축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 컨벤션센터에는 3천여평의 전시공간과 최대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볼룸, 최대 2천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26실의 미팅룸 등을 갖춰 각종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센터를 핵으로 하는 국제업무지구는 총 5단계의 개발계획을 주축으로 진행되며 제1단계는 컨벤션센터 착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2008년까지의 1단계 사업에선 컨벤션센터와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호텔, 백화점 등을 마련한다. 이후 각 단계별로 공원, 박물관, 골프장,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을 갖춘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다.
이 센터는 완공된 뒤 우리시에 무상기부되며 회사측은 센터 인근에 짓게 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골프장 등의 분양·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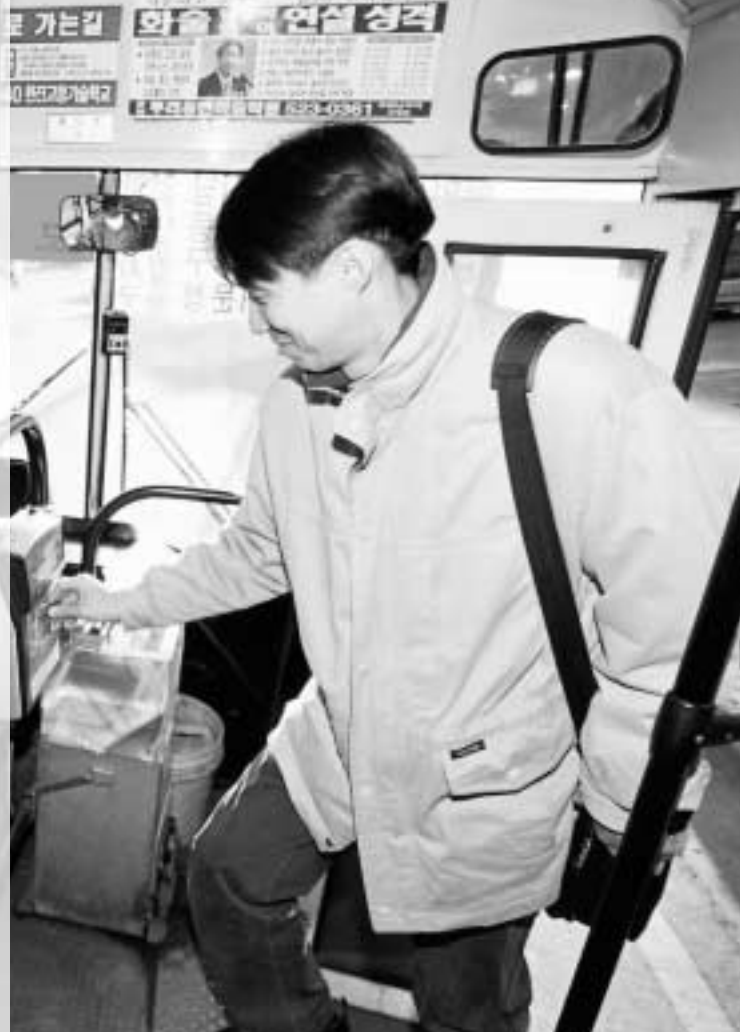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청-관광공사 업무협정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광개발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9일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유건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조선호텔에서 조인식을 갖고 공동홍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자원을 위한 강사파견 등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달중 업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달까지 업무협조 범위와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제대로 알면 교통비 아낄 수 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 환승 무료(할인)제도와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11월 8일부터 변경되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존의 시내버스간 환승무료는 물론
 시내일반좌석버스, 광역버스간에도
 환승무료(할인)제가 확대된다.
또한, 인천지하철과 경인전철 환승도
 단계적으로 할인제가 시행된다.



버스 ↔ 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500번대),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5-1번)는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환승하면 요금이 무료다. 다만, 광역버스는 일반요금에 한해 500원 할인되며 광역버스에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시내일반좌석버스로 환승할 때는 광역버스의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환승할 경우에 요금이 무료다.

버스 ↔ 인천지하철

간선버스, 지선버스(500번대),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5-1번)에서 인천지하철 환승시는 버스 승차시간 기준 1시간 이내일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의 50%가 할인된다. 반대로 인천지하철에서 버스로의 환승은 지하철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이면 버스요금의 50%가 할인된다.
다만, 인천지하철의 환승 할인 시행은 시스템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1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버스 ↔ 경인전철

간선버스, 지선버스(500번대),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5-1번)와 경인전철 환승은 버스 승차시간 기준 1시간 이내에 환승할 때 경인전철 기본운임의 50%가 할인된다. 반대로 경인전철에서 버스로의 환승은 전철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일 경우 버스요금의 50%가 할인된다.
다만, 경인전철의 환승 할인은 인천시계 내(인천역·부개역)에만 해당된다. 현재 철도청과 환승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금을 사용하면 환승 무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통카드(선불·후불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승차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환승해야 한다. 광역버스(빨강버스)의 경우 하차시 일반버스 및 좌석버스로의 환승 이용객은 탑승시와 똑같이 운전기사 옆의 카드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다시 한번 대고 내려야 하며, 하차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환승해야 한다.

하차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인천지하철 및 경인전철의 경우 하차 후 출구의 카드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내 버스로 환승해야 할인된다.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무료(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승횟수는 거리에 관계없이 처음타는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최대 4회 이내로 적용된다.

참조 _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교통정보(대중교통안내)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82)

버스노선 10개 신설 운행

우리시는 내년 시내버스(간선형)와 마을버스(지선형) 노선 등 10개 버스 노선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노선은 ▲부평구청~부개동~상동택지구~부천시청~상동우체국~부개동~부평시장~부평구청(노선 길이 14km) ▲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갈산역~부평구청~삼산주공 2단지~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10.7km) ▲가좌동~간석시장~인천터미널~독재이~남구청~동인천~월마트~인천의료원~가좌동(26.5km) ▲부개주공아파트~산곡동~백운역~동수역~한국아파트~부개주공(11.7km) 등 4개다.
또 마을버스는 ▲마전지구~당하지구~서곶길~검암사거리(12km) ▲굴현지구~장제로~굴현역(1.4km) ▲서운동~서운중·고~현광아파트~동보아파트~작전역(7.8km) ▲송도테크노파크~송도신도시~동막역~동춘역(9.7km) ▲경서지구~공촌사거리~경명로~계산삼거리~계산역(18.5km) ▲청학동~청학사거리~킴스클럽~용담공원~연수구청~동춘역(8.6km) 등 6개다.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유형	환승무료(할인) 내역	시행시기
시내버스(간·지선버스),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5-1번) ↓ 광역버스	■시내버스, 시내일반좌석버스 - 무료환승 ■광역버스 - 500원 할인(일반인에 한함)	2004년 11월 8일 시행
시내버스(간·지선버스),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05-1번) ↓ 인천지하철	후승 교통수단의 기본운임 50% 할인	2004년 11월말 시행
시내버스(간·지선버스),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5-1번) ↓ 경인전철(시계내 구간)	후승 교통수단의 기본운임 50% 할인	철도청과 협의 후 추진예정
시내버스 상호간 간선버스 ⇄ 간선버스 지선버스 ⇄ 지선버스(500번대) 간선버스 ⇄ 지선버스(500번대)	무료환승	2003년 12월 30일부터 이미 시행 중
시내버스(간·지선버스) ↓ 시내일반좌석버스(103번, 105번, 105-1번)	무료환승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



점순네 이겨라... 송도댁 이겨라

사진은 1960년대 초 지금의 동막 근처에서 열린
어민의 '자기 양양책'의 하나인 조개까기대회이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치른 이벤트로,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조개를 까는 사람이 우승자로 뽑힌다.
마을별 혹은 개인별로 줄맞춰 쭈그리고 앉아
손빠르게 조개를 까고 있는 아낙네들의 모습과 뒤에서 응원하는 동네사람들
그리고 감독관의 모습에서 긴장감까지 배어 나온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래아줌마, 인삼아가씨,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성격을 지닌 지역축제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조개까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무슨 칭호가 주어졌을까?
조개여왕? 조개아줌마? 문득 궁금해진다. <鉉>

이제 우리를 고상하다 부르지 마시오~



2003년 4월 7일은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한자리에 모인 기쁜 날입니다. 새까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열 대의 가야금들이 썰렁한 동아리실을 지킨 지도 오래... 정작 그 가야금들을 아름답게 연주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제 행복한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1기로 매달 약간의 수강료를 내고 약 20시간 정도를 수업받는 형식의 특기적성부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우리들은 이제 갓 중학생이 되어 모든 것들이 낯선 신입생, 그리고 풋내기들이었습니다. 그 무겁기만 했던 냉전체제가 풀리기까지 한 달이라는 꽤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을 지겨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수업을 하고 자신의 특기·취미와는 거리가 먼 재미없는 예체능 수업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가야금부 생활은 일종의 오아시스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이틀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하루 수업시간은 한 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학과 수업시간의 두 배가 되는 시간임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가야금이 저에게 가져다 준 선물, 그것은 단순히 가야금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친구들과 동생들, 그리고 제 삶의 한 칸에서 인생담을 하나하나씩 들려주며 때로는 매운 조언도 해 주시는 가야금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그때 그 현장!

2003년 7월.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전통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중석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밤의 소리'라는 작품으로 가야금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연주차례가 가까워 오자 색색시 같이 쑥스러우면서도 오랜 연습시간에 대한 여유로움이 온몸의 혈관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장하자 제 또래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촌스러운 한복 색! 아, 이게 화근이 될 줄이야.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래서 더욱 난감했습니다.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는 공간.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2악장이나 남아있음에도 마지막 인사를 하려했던 아이들, 가야금 안쪽이 제자리를 이탈해 엄청나게 치명적인 소리를 낸 아이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의 부분을 여기서는 '땡', 저기서는 '뚱'... 그야말로 엉망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그날 우린 가야금 선생님께서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음악선생님으로부터는 호된 꾸중을 오랫동안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야 정말 우스꽝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태했던 저희들을 조금이나마 일깨워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잊혀지지 않을 시간들, 그렇게도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이었기에 어쩌면 아쉬움이 더 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야금 동아리부의 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젠 정말 무엇인가에 깊이 빠지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하나 기억을 되새기자니 울고 웃을 일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웃었던 일들도 시간의 흐름에 아쉬움을 갖고 울었던 일들도 소중한 추억이라 미소짓게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같은 글 솜씨로 제가 가야금으로부터 얻은 것, 본 것, 느낀 것들을 적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가야금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요?

가야금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나이 여든이 되어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담아내지 못한다 하여도 결코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생각을 해봅니다.

글 _ 윤슬아 (인화여자중학교 2학년)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 열두번째 사람

춤추는 여자의 겨울 눈빛, 한명옥 씨

문화예술회관은 온통 11월의 단풍이 붉은 목소리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돌계단을 지나 시립무용단 연습장에 들어선다. 거기에도 꼭 단풍잎 같은 몸으로 빛깔로 아우성치는 젊은 여자 무용수들이 있다. 그녀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풍기는 코가 매운 향기! 얼마 안 있어 인도와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로 공연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연습이 한창이다.

한명옥(韓明玉) 씨는 이 무용단의 예술 감독이면서 상임 안무가이다. 검은 옷차림, 이마가 시원하게 드러나도록 빗어 뒤로 묶은 머리. 굵은 진주 알맹이가 달린 귀고리.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리 보아도 단풍잎이 아니다. 눈빛이 형형해서 이상한 불꽃 같은 것이 타고 있다. 고요한 겨울이 보인다.

“저한테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들린 듯하다고…”

느껴지다마다. 그런 걸 기(氣)라고 말할 것이다. 일년 365일, 하루도 몸을 가만히 둔 적이 없는, 그러면서 두 발로 땅을 쓸 듯이 밟아 지기(地氣)를 받아들인 여인이니. 그리고 그것이 40년이 넘었으니.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어떨까. 맞다. 창 밖에, 느티나무들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염없이 이파리들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다 이 여인의 기 때문일 것이다.

반은 낮선 어느 신(神)이 가져가고, 반은 펄펄 끓어 뜨겁게 춤추는 육신으로 남은, 작은 남쪽 나라 여인. 그렇다. 웃으면서도, 남국이면서도, 겨울 불빛이 타고르고 있는 저 눈동자의 매력이 그것을 말한다. 혹 남국이 아니라면 터키라도 좋고 페르시아라도 좋을 것이다. 틀림없이 거기 불빛이다. 전생에도 그녀는 박사(薄紗) 비단으로, 아니면 아슬하게 먼 별빛으로, 하르르 하르르 떨리는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렇다. 촛불 아래 떨어진 붉은 향낭(香囊)에서 나는 향기인지, 아니면 수련거리며 올라오는 안개 냄새인지, 초승달빛이 그리움에 부스러져 풍기는, 여인의 춤에서는 그런 진한 향내가 났을 것이다. 밤새 흰 김에 배었다가 흩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향훈 같은 것!

잠시 여인에게서 눈을 떼어 둘러본다. 사무실 창가 선반처럼 된 곳에는 이제까지의 공연을 수록한 수많은 비디오테이프들이 쌓여 있고, 벽에 걸린 표에는 공연 스케줄, 연습 일정이 춤 포스터 같은 것들과 함께 빼곡히 들어차 있다. 낫익은 이름, 김 모 시인의 작품도 걸려 있다. 또 한 편에 여러 나라에 공연을 다니며 그때마다 모은, 북이나 장구 같은 작은 모형 타악기들, 그리고 문득 가지각색의 포즈로 이상한 나라의 춤을 추는 특이한 인형들에게 눈이 간다. 주술을 거는 것 같다.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젊은 단원들이 춤추고 있는 곳으로 간다.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날을 듯 날을 듯, 날지는 않고 사뿐사뿐, 발끝으로 바닥을 밟으며 혜진이 혜정이 은옥이 지진이 영애의 예쁜 무색 저고리 끝둥이 알싸한 향기에 어려 한낮인데도 밤처럼 어질하다. 날지 않는 나비들이 더 현란하다. 길사(吉事), 부채춤인가. 태극 문양 같기도 하고 그냥 원 같기도 한 그런 테두리를 만들며 젊은 여자들이 그 화사한 조선 부채를 활짝 폈다 접었다 하며 빙그르르 돌아간다. 언제 쫓아왔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명옥 씨. 잔잔하게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가 않다.





“더 말하고 싶은데…”

한명옥 씨와 무용단은 11월 29일까지 두 주일 동안 앞서 말한 세 나라들을 돌면서 우리의 옛 전통 무용을 공연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다른 여러 무용단을 제치고 그 나라에서 개최되는 ‘한국주간(韓國週間)’ 행사에 문화 사절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여인은 더 자신만만하면서 더 눈빛이 날카로운 것일 게다.

「장고춤」 「부채춤」 「동래학춤」 「무당춤」 등의 전통 무용뿐만이 아니다. 「여명의 빛」 「그 오천 년의 향기」 그리고 북춤으로 「두드리라」 같은 창작 무용과 함께 인천 지방 무형 문화재 3호인 「나나니 춤」도 취 보일 계획이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연습장은, 장구 소리가 흥겹게 뿜뿜덕거리는 화요일 오전은, 이 기 센 남국 여인과 젊은 무용수 여자들이 피워 올리는 자옥한 겨울 안개 때문에 머리가 어찔한 것이다. 그리고 여인은 그런 것들을 더 속속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춤이요? 여섯 살부터 춤을 추었지요. 외동딸이었는데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어머니가 춤을 가르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로부터 외길 춤 인생길을 걷게 된 셈인데,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중학교 때 잠시 춤을 쉬었다가 성신여고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했고, 이화여대 무용과 입학, 그리고 1987년 미국 뉴욕대학에서 무용교육과 석사를 하고 돌아와 한양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 육완순(陸完順), 김매자(金梅子), 이매방(李梅芳) 선생 등 한국 무용계 거물은 다 모셔 보았다. 이화대학 출신 무용가들이 모인 창무회(創舞會)에서 활동도 했다. 이것이 잔나비 떠 여인의 춤판 40년.

이렇게 부지런히 춤추고 공부하느라고 이 남국 여인은 학창시절에 연애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불행(?)을 감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몸 속에 들어차는 무기(巫氣) 때문인지 마음에 남자가 끌리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뒤로 무슨 선사시대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우수수 낙엽이 날린다.

“여기서 무용단 감독 일을 한 지는 이제 4년예요. 창작 무용이 보람은 있지만 단원들 통솔하랴, 힘도 들어요. 요즘 비로소 외롭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식구들, 그 중에도 우리 남편이죠. 이 일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럼, 인생 성공한 거죠?”

그리고는 힐끗 창밖으로 눈을 주면서 무슨 기운이 감도는 여인은 GM대우 전무로 있다는 남편과 가족 이야기를 한다. 남편은 지금 베트남 지사장으로 나가 있고 아들은 고려대, 딸은 홍익대 미대. 구월동에 차렸던 신혼 살림과 그 시절을 거쳐 서울로 이사해 간 이야기, 미구에 다시 인천으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 고스톱을 칠 줄 모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몇 군데 대학에 강의도 나간다는 이야기. 그쯤이면 성공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덧붙여 된장찌개, 김치찌개, 뽕대이 회덮밥 같은 것도 좋아한다는 여인의 이야기.

“오늘, 춤은 못 보여 드리네요.”

춤추며 드러나는 고뇌 같은 것을 보고 싶었는데. 조금은, 무서운 눈빛 속에 꿇고 있는 허무 같은 것을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떨리듯 어깨를 추었다 내리면서, ‘두 눈은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살포시 모두우고’ 홀로 텅 빈 마루 바닥을 돌아가다 돌아가다 내어 밀 듯 멈추어 서고, 또 다시 나아가는. 그런 여인의 춤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겨울 밤이 오고, 향기 같은 달밤이 오고, 북이 울고 종이 울고, 다시 봄날이 오고….

청산 깊은 절에 울어 끓인
중소리는 아마 이슬하여이다.
정경히 밝은 달은
빈 절을 텅없이 비추이고
뒤 안 이속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조차
저리 슬피 우는다.

아아 어이 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날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몸은 서러라.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여!
현세의 어지러운 번뇌가
짐승처럼 내 몸을 물고
오오, 형체,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 수플 속에
비밀한 뱀이 꿈 어리는 형역(形役)의
끝없는 갈림길이여.

〈신석초, ‘바라춤’ 부분〉

저물어가는 한 해의 저녁, 겨울을 고요히 불태우고 있는 남국 여인의 눈빛이여. 춤추라. 비밀한 뱀이 꿈 어리는 형역의 갈림길이여.

글 _ 김윤식(시인) · 사진 _ 김보섭(사진작가)



겨울철 뒷간의 공포

글 _ 전찬용 (경원대 인천한방병원장, 한방내과전문의)

겨울만 되면 한의사들에게는 ‘뒷간의 공포’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회자된다. “옛날 한 옛날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깊은 산골 오두막집에, 늙은 할아버지와 자식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 글썽 어느 날, 할아버지가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을 지나 뒷간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큰일을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도대체 큰 놈이 나오질 않는 거야. 한참을 있다가 ‘꽁’ 하고 배에 힘을 주는데 나오라는 큰 놈은 나오질 않고 얼굴만 붉어지더니, 이 할아버지, 그만 스르르 무너져서는 그대로 중풍이 와서 쓰러져 버리는 거야...”

물론 요즘은 주거문화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생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운 겨울이면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중풍이 잘 일어난다. 추운 겨울, 새벽이나 한 밤중에, 추운 밖에서, 옷을 벗어 놓고, 쭈그린 자세로, 힘을 쓰고, 변비가 있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라면...중풍을 부르는 완벽한(?) 조건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노인이 있는 집은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실내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사용하고, 고혈압과 변비를 잘 관리해주는 정성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막상 중풍이 왔을 때 치료하는 돈보다 훨씬 적고, 효도를 하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니 병이 온 뒤 보호자끼리의 불화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또 겨울만 되면 한의사를 찾아와서는 ‘중풍예방을 위해서 왔으니, 정기산(星香正氣散)이나 속명탕(小續命湯)을 달여 주시오’하시는 분도 있다. 체질과 병증에 맞지 않아 다른 처방으로 바뀌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발병 후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 이해하고 인간적인 정성을 더해 진료하게 된다.

겨울철 노인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병에라도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제안을 한다. 고령이라는 것은 거꾸로 쉽게 잔병치레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잔병이라도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쉽게 폐렴으로 넘어가며, 노인 폐렴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 뜨고 당하듯’ 잘 못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중풍 외에도 겨울에 노인들이 조심해야 하고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독감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이 있다.

독감예방 및 체온유지 - 겨울철 대표적인 노인질환으로 독감을 들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옷을 두툼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해 주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시나 독감에 걸리게 되면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것도 좋다.

골절주의 - 노인들은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넘어져서 골절이 오기 쉽다. 특히 동절기에 척추골의 압박골절이 55~60%정도로 가장 흔하며, 엉덩이 관절주위 골절, 손목골절 등이 흔하다. 따라서 골절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햇볕을 쬐어주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유나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혹시라도 골절이 있다면 다른 부분만이라도 운동을 활성화하여 욕창과 폐렴합병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독자마당 | 이번호에는 주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쓴 글들을 모았습니다.

바다낚시

혹자는 낚시를 무슨 재미로 하느냐고 의아해 할테지만 이는 모르는 말씀. 공자는 말하기를 인자(仁者)는 산행을 즐기고 현자(賢者)는 물을 즐긴다고 하였다. 공자의 말을 빌면 물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낚시꾼들은 현자임에 틀림없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도락이라고도 한다. 대개의 도락은 자칫 가산을 탕진하고 몸을 버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낚시는 오래할수록 현자의 묘를 터득할 뿐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제16회 경기도민회 바다낚시대회가 지난 9월 23일 덕적군도 해상에서 개최되었다. 오랜만에 하는 낚시 때문인지 전날 다소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낚시 전용 선박은 8시 정각에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잔잔한 해면을 가르며 2시간 30분만에 자월도와 영흥도 중간 해상에 정박하였다.

가장 손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바로 우럭투어 낚시다. 장비와 채비가 간편하고 낚시 기법도 어렵지 않아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럭낚시다.

30분후 승봉도 인근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옆에 있는 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때 찌에 기미가 왔다. 힘껏 낚싯대를 낚아챘다. 손이 묵직하다. 핑 핑 낚싯줄이 운다.

나는 되도록 천천히 끌어당기며 짜릿한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희열(喜悅)이란 이런 때 쓰이는 가장 적절한 어휘일 것이다. 클수록 릴을 당기는 시간이 비례한다. 대어의 꿈. 신비와 흥분과 유열이 나를 송두리째 감싼다.

배는 낚시 조황을 봐 가면서 부도, 풍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를 향해했고 오후 3시 30분까지 근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는 낚시 동호회원들이 한배에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대회결과는 우럭 35cm 대어에 총 8마리를 낚은 홍성호 정화원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 후 잡은 우럭으로 회를 뜨고 남은 뼈들을 함께 모아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소주에 곁들여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우럭회는 입에서 쫄깃쫄깃하면서 혀에서 녹는 맛이 평소 집근처에서 사다 먹던 양식 우럭맛과는 천지차이가 났다.

인천으로 귀향하는 배 뒤편에는 석양의 붉은 해가 이어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설새없이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다.

조성현 (경기도 수원시 / 전 안성군수)

김치냉장고와 부모님

일요일이라 늦은 아침밥상을 물리고 돌아서는데 한통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에미나? 백화점으로 빨리 와라” 나는 남편과 영문도 모른 채 백화점에 도착해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순간 고마움에 목이 메어왔다.

부모님은 남들 다 있는 김치냉장고가 너희만 없어 늘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으면서 돈 생각하지 말고 신세대에 맞는 것으



로 고르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화점 직원은 머느리가 얼마나 예쁘면 시부모님이 김치냉장고까지 사주시냐며 무척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사실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몇 해 전 우리가족이 주택을 장만할 때에도 큰돈을 보태주셨고 허리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아버님은 집수리까지 해주셨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며칠 후 한통의 전화가 또 울렸다. “에미야, 모레 김장하자~”

김미영 (남구 주안2동)

작두콩 기로에 서다...

유달리 큰 몸매의 작두콩 씨앗을 큰데에 가서 소중히 얻어 보관하던 큰 녀석이 늦은 여름 작은 화분에 싹을 틔웠습니다. 작은 햇볕을 시샘하듯 하루가 다르게 줄기를 하늘로 향하더니 아파트 작은 실내로 뻗을 수 없는 작두콩의 몸매를 고민하던 큰 녀석이 뚫어진 방충망 틈새로 빠죽이 줄기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작은 화분이 마를 새라 아이 둘은 서로 물도 주고, 연보랏빛 고개 숙인 꽃도 어여쁘다 환호성도 질렀습니다.

큰 녀석은 뚫어진 방충망 사이로 침입하는 늦은 모기떼의 극성도 아랑곳없이 극진한 보호로 늦은 가을 꽤나 커다란 열매를 맺게 하더군요.

며칠 전 바람이 몹시 불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는 가을맞이를 애기하며 작두콩과의 이별을 선언했지요.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살고 있으니 방충망 밖, 매달린 꼬투리 하나는 밑에서 받기로 하고 집안 쪽에서 그동안 즐거움을 고마워하며 방충망안쪽 가지를 툭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녀쿨 하나로 5층 베란다 끝에 매달려있는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있는 것입니다.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가지 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며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지 하나로도 온 가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건만 하물며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김정례 (남구 주안7동)



나에겐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학창 시절 친구들이 생각난다. 내가 인 천에 온 지 벌써 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지도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나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야간 과정을 졸업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하겠다고 야간 고등학교에 어렵게 입학했다. 낮

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피곤하면 즐기도 하면서, 소풍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며 그렇게 3년이 흘러 졸업을 했다.



어렵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때 알았던 5명의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다. 이제는 다 결혼해서 아이들 엄마가 되고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40대 50대가 되어도 서로 잊지 못하고 친구를 찾는 것은 그런 시절을 같이 지내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학교를 구경하러 간다. 그때와는 많이 변한 모습이지만 구름다리며 거북이등길이며 다 잊을 수 없는 곳이다. 친구들아... 우리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서로 아끼고 보고 싶어 하면서 나이 먹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아이들이 많이 크면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은정 (부평구 십정 2동)

따끈한 굴

방과후 교실에서 정들었던 아동들과 헤어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맛벌이, 편모, 편부가정의 아동들, 자칫하면 위험의 사각지대에 빠질까 염려스러워 걱정이 앞섰다. 아이를 대하다 보면 각 가정의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이유없이 소리지르고 주먹질을 하고, 허 내밀기 등 개성이 각각이다. 그중 글을 못 읽는 준이는 매우 눈이 맑고 까만 얼굴이다. 그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산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출하였다고 한다. 내가 근무한 곳은 산꼭대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인구 밀집지대여서 처음에 무척 힘들었지만 준이 덕에 나는 쉽게 이곳 지리를 훤히 알게 되었다. 준이가 이곳 위치를 손바닥처럼 보게 된 계기는 아마도 부모님의 모습이 그리워 안가 본 곳 없이 홀로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드문드문 얼굴만 보이고 어느새 없어지는 준이가 오늘 방과후 교실에 왔다. 날씨도 썰렁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 얼음뎡 놀이를 하기로 했다. 잠시 후 살피니 준이가 안 보인다. 정리를 마



치고 교실에 들어와 보니 내 가방 소지품들이 흩어져있고 지갑이 없어졌다. 며칠동안 준이는 안 온다. 방과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간신히 준이 있는 곳을 알아서 준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가 봤다.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 보이셨고 내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신다. 준이는 내

가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이 좋은 듯 미소를 머금었다. 오늘은 이 곳에서 마지막 수업이라 쫓 파티를 하기로 했다. 분주히 음식을 준비 하던 중에 준이가 살금살금 나에게 와 우물쭈물 하다가 잠바 속 어깨 밑에 있는 숙주머니에서 따끈따끈한 굴 한 개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버린다. 뒤에서 준이를 몇 번 불러 보았지만...

김기수 (동구 송현동)

아침의 노래

머언 하늘 경건한 아침은
환희의 함성으로 성스럽고 위대하다.
동해의 황금물결 태극기를 흔들며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은 통일을 갈망하는
온겨레의 외침이다.
강으로 오는 고요한 아침은
평화의 기도속에 지고지순하다.
초록빛 향연 싱그러운 아침은
세상을 여는 젊음의 푸르름이다.
머무는 수풀 태고의 깊은 숲길로
다소곳이 숨어오는 정숙한 아침은 신비롭다.
떠나는 나무 나뭇가지 사이로
향처럼 피어나는 눈부신 아침은
순진무구한 천사의 미소다.
해뜨는 언덕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해맑은 아침은 황홀한 교향악이다.
송엄한 감격이다
불모의 땅 사막 낙타를 타고 오는 아침은
그리스도의 포옹 고통의 인내로 승리한다.
별은 아니어도 꽃은 아니어도
풋풋한 사랑의 노래가 있고
가슴에 고향 품은 그리움의 향수가 있고
이슬 머금은 영롱한 풍광의 감동이 있고
하얀 꿈이 피어나는 다정한 얼굴이 있고
생의 찬미를 구가하는 영광의 빛이 있고
구원의 손길 새아침은 천지창조의 원동력이다.

가끔 오늘이 힘들어도 어제가 그리워질때
새아침은 모든 것을 불사르고 활짝편
싱싱한 모습으로 늘 건강한 청춘이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순수의 열정으로
오직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스럽고 고귀하다

어제의 아침도 기쁨으로
오늘의 아침도 즐거움으로
내일의 아침과 행복한 아침으로 아우르는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우리 모두 함께
곳곳이 살고 싶다.

오늘도 나는 어둠을 헤치고 일어난
당신을 위한 일념에 설레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두손 벌려 새아침을 맞이한다
이재기 (남동구 구월3동 / 시인, 아동문학가)

견고 싶어 왔던 길

질은 흙 향에 젊음이 더했다
밤이면 불 밝혀
중등 과정 빈민 교육,
계동(桂洞)중학원.
바라던 교단생활, 그렇게 시작했다.

교대 나온 열정으로
'민주·도의·부강',
가슴에 품고
바람막이 문짝 달며
무에서 유를 창조.
경기 화성 고정(古井)에서, 초등 교육 출발했다.
애향반 운영하며
통일 염원 민주의 꽃, 화산(火山)에 피게 했다.
실습지 일구며 자활학교 기반 조성,
새벽중에 비질하며 부의 마을(富谷) 가졌다.

귀향의 집,
멧골(山谷)에 풀고는
사람이면 사람이나
도의 교육 펼치며
과학 교육 이끌었다.
주경야독, 학문연마
학사모의 집념은
청천(淸川)에서 이루고.
경제 부강 사회 교육,
효성서(曉星西)가 시발점.
산곡북(山谷北) 교단은
컴퓨터 출현에
쏟아지는 교육 문제,
공론화에 힘쓴 곳.

‘초등학교’ 간판 달며
열린교육 외치더니
느닷없는 정년 단축,
‘명퇴’ 폭풍, 웬 말이나.
교무실의 공허함에 그리움은 더하고
그래서 마곡(馬谷)은 교단의 태산준령.



교육 실정 규탄하며 자존심 알리나
여의도엔 메아리뿐.
교실 붕괴 가속화에
교편은 사라지고,
‘티나라’ 수업에
NEIS 교단 분열,
상상이나 했을까.
산곡남(山谷南)의 정년 교단.

향토 교육 5개년에 초등 교단 39년,
굽이굽이 왔던 길.
되돌아가라 하면
왔던 길 걸으라면
다시 걸 수 있을까.

계동중(1960학년도~) -
고정 - 화산 - 부곡 -
산곡 - 청천 - 효성서 - 산곡북 - 마곡 - 산곡남.
교단 생활 44년!
견고 싶어 왔던 길.
홍성덕 <(부평구 청천1동) '04년 2월. 초등교원 정년퇴임>

다음달 테마는... 나누고 싶은 글과 연말연시

다음달은 새해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글귀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책 등에서 보았던 좋은 글귀를 출처와 함께 보내주세요. 사진의 테마는 ‘연말연시 풍경’입니다.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국화축제

아치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국화 앞에서 엄마, 아빠 찰칵!! 음~ 국화향이 나는 듯 해요~
김현정 (중구 향동)



우리가족은 네명?

'인천 중국의 날 축제'에서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입혀주시는 옷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우리막내가 결국은 길 가던 옆집 아이처럼 찍혔습니다. 우리 아이 맞습니다! 맞고요~
우린 다복한 다섯 식구랍니다.
윤승환 (연수구 동춘2동)



누가 더 예쁜가요?

사진은 작년 가을 주안4동 동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활짝 핀 국화꽃이 예뻐서 우리 작은 딸아이를 앉혀놓고 찍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작은 딸이 더 예쁜가요? 국화꽃이 더 예쁜가요? 제 눈에는 우리 작은 딸아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김문철 (서구 가좌3동)



우리미래의 새싹

조카를 데리고 제부도에서 멋진 포즈를... 우리미래의 새싹을 보니 든든합니다. 조카님 !!! 아자 아자 아자... 미래로
이윤희 (계양구 작전1동)



나는야 인디언

작은딸 키즈유치원에서 신문지와 낙엽으로 만든 인디언 복장을 입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쁜짓... 아빠 앞에서 패션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큰딸.
너무 귀엽지요.
김봉수 (연수구 연수3동)



제주도의 가을 추억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이 사진은 결혼하기 바로 전 함께 친구커플과 가을여행을 떠났을 때 찍었던 사진이다. 이제는 8개월된 딸이 있어서 가을여행을 하기 힘들것 같고, 내년에는 딸과 함께 가을 추억 여행을 떠나야겠다.
허두영 (계양구 효성1동)



차를 닦는건지, 몸을 닦는건지

세차 좀 하랬더니 서로에게 물 뿌리고, 훌쩍 젖어가지고선... 아예 지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정경옥 (부평구 삼산동)



나를 울려주는 비

부산에서 열린 한 행사 중 퍼포먼스의 한 장면. 진흙으로 온몸을 바른 행위예술가가 갑자기 우산을 펼쳐들자 한 꼬마가 엄마에게 묻더군요. "엄마, 밖에 비 와??"
강해자 (남구 용현5동)



봄날의 꼬마눈사람

지난 초봄, 갑자기 내린 폭설(?)로 아파트마당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쌓였어요. 그때 아이들과랑 합심해서 눈사람을 만들었네요. 며칠 지나지 않아 눈사람은 온데간데없이 다 녹아버렸었죠. 그래도 이 사진이 있으니 아이들도 기억할 수 있겠죠?
오현숙 (부평구 산곡3동)



눈썰매 정말 재미있어요

작년 겨울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러 갔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앞에서 끌어주는 눈썰매를 타면서 어찌나 즐거워하던지... 날씨가 추워 코도 빨갛게 얼고 손이며 발도 꽁꽁 얼었는데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장정화 (남동구 고잔동)



재미있는 '똥광 화장실'

광주비엔날레 기발한 옥외 화장실 모습입니다. '볼일' 없는 사람도 우스꽝스러운 화장실이 신기한 듯 그냥 들어가 보고 했답니다. 출지에 '똥광 화장실' 앞이 기념사진 찍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김광옥 (동구 만석동)



루돌프 꼬마사슴

지난 성탄절 때 성당에서 구역별 노래자랑이 있었죠. 루돌프를 연상하는 빨간 코를 붙혀 장기자랑에서 상도 탔어요. 우리 아이들 영문도 모르고 같이 무대에 올라섰다가 자기들이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신이 나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최인화 (서구 가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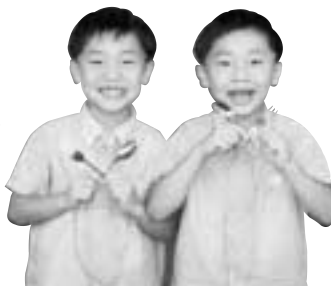


사촌들의 체육대회!

사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었네요. 다 끝나고 찍은 단체사진입니다. 출석율이 60%이니까 그래도 많이 빠졌죠? 아버지 형제분이 8남매이니까 보니 이렇게 사촌들이 모여도 엄청 많은 식구가 된답니다. 올봄 열린 체육대회에서의 한 컷입니다.
이동연 (서구 가정3동)

엽기적인 표정

저희 쌍둥이 조카들의 가장 엽기적인 표정입니다. 지난 추석 때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가 찍은 사진이지요. 제가 쌍둥이 조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엽기적인 표정을 지어봐라"고 했더니 이런 표정을 짓더군요. 아이들의 변인즉 자신들이 해골이고 들고 있는 포크 나이프가 뼈다귀라냐? 게다가 이빨까지 빠진 모습이 얼추 엽기적인 해골모습 같긴 하죠?
이은수 (연수구 연수3동)



우리도 모델

웅진군 덕적도로 발령 났을 때는 몸시도 걱정이 앞섰는데 시골생활에 적응 잘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골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품, 너무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임현범 (계양구 병방동)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우리 지은이 두 살때 지은이 준다고 과자 사와서 아빠가 다 먹고 있는 모습.
누가 아빠고 누가 아이인지?
이상순 (서구 당하동)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 12월 16일 ~ 31일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 **인터넷 납부제도**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납부제도 : 17개 시중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 한미은행 인터넷뱅킹(www.goodbank.com)납부제도 : 계좌이체, 카드납부, 대출납부(한미은행 계좌소지자에 한함)
- **납부문의** : 각 군·구 세무과(재무과, 시세과)
 -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세정과 (453-7190)
 - 중 구 세무과 (760-7241)
 - 동 구 세무과 (770-6291)
 - 남 구 세무과 (880-4186)
 - 연수구 세무과 (810-7190)
 - 남동구 세무과 (453-2271)
 - 부평구 시세과 (509-6206)
 - 계양구 세무과 (450-5252)
 - 서 구 세무과 (560-4231)
 - 강화군 재무과 (930-3291)
 - 옹진군 재무과 (880-2151)

지역건강보험료 변동됩니다

2004년 11월분 지역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과세자료를(소득·재산) 적용하여 지역보험료가 일부 변동됩니다.

- **재산 (건물·토지)** : 2004년 6월 1일 소유기준
- **종합소득** : 2003년 귀속분 (2004년 5월 신고분)
- 2004년 11월 정기고지서에 표기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연계된 신규자료의 폐업·매각 등의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적용된 경우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04년 12월 1일~ 2005년 2월 28일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인하대병원 후각장애 건강강좌

인하대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해 12월 무료 공개건강강좌를 실시합니다.

- **강좌일시** : 12월 28일(화) 오후 3시부터
- **장 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후각장애의 예방과 치료
- **강의교수** : 이비인후과 최윤석 교수
- **기타사항** : 참석자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드립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890-2641~2)

신나는 겨울 눈썰매장 즐기자



서구 제일의 가족놀이 시설인 서구눈썰매장 및 눈광장이 겨울방학을 맞아 12월 11일 개장합니다. 서구 눈썰매장에서는 눈썰매장, 눈광장, 유로번지, 스넥하우스, 휴게실, 방송실, 의무실, 물품보관함, 무료주차장(209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 성인 : 7천원, 청소년 5천원, 소인 4천원

- 단체 : 30명이상 20% 할인, 50명이상 30% 할인(평일에 한함, 단체인솔자 및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입장료 면제)
- 유로번지 : 5천원

- **교통편**
 - 시내버스
 - ▲서구청 앞 하차 : 7, 13, 17, 17-1, 77, 112번(도보 5분)
 - ▲썰매장 앞 하차 : 1, 28, 591번
 - 자가용
 - ▲가정오거리(서인천 1·C)에서 서구청(강화)방향3km
 - ▲검단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 8km
 - ▲계양·C에서 서구청 방향7km

※단체 이용은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서구사계절(눈)썰매장 (565-3483, 560-4945)

화도종합복지관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12월 7일(화) ~ 2005년 1월 3일(월)
- **교육기간** : 2005년 1월 4일(화) ~ 3월 24일(목)
- **과정**
 - 기술교육 : 도배기능사양성, 양재(초·중), 한식조리사(생활요리·자격증반)
 - 취미교육 : 컴퓨터 자격증반, 컴퓨터(초급·중급), 꽃장식, 생활일어, 흙패션, 한복만들기, 한지공예, 생활제과,

- 반찬요리, 메이크업
 - **접수장소** : 화도종합복지회관 1층 사무실
 - **접수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제출(신분증 확인)
 - **수강료** : 1인 한달 10,000원 (3개월과정 30,000원 일시 납부)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수강료 (30,000원)
- 한편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는 맛있고 특별한 음식 만들기 단기 특별 강좌를 엽니다.
- **신청기간** : 12월 1일~10일 선착순 접수(접수 : 화도복지회관 1층사무실)
 - **교육일시**
 - ▲12월 11일(토) 10:00 ~ 13:00 – 크리스마스샐러드, 카나페
 - ▲12월 18일(토) 10:00 ~ 13:00 – 후르츠 후리다 및 과일 테코레이션, 소라화이어 (작은 식탁의 캠페이어분위기 연출)
 - **수강료** : 무료, 재료비 : 20,000원(접수후 환불안됨)

문의 _ 화도종합복지관 (765-2198)

어르신 취업 알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노인취업지원센터연합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인력이 필요하신 업체에 인력을 지원합니다. 60세 이상 노인인력이 필요하신 구인업체의 연락을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신체 건강하신 60세이상 남·여 어르신
- **모집직종** : 경비, 청소, 건물관리, 주차관리, 간병 등
- **모집기간** : 연중

문의 _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 (885-3751, Fax 884-8190)

주정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최근 우리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어 차량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웅진군을 제외

가격 표시제가 개정됩니다

2004년 12월 3일부터 가격표시제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 **판매가격**
 - 판매가격은 소매업자(도·소매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가격임
 - 따라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 : 42개 업종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농약과 비료 판매점은 소매점포 및 도소매 병행점포를 포함한다)
- **표시방법**
 - 판매가격표시는 제조업자 등이 표시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 등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 취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 상·하단, POP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종합적으로 제시
 - 할인판매시 판매가격 표시

2. 단위가격에 관한 사항

- **표시의무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표시대상품목**
 - 가공식품(20개)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주스(100㎖)
 - 일용잡화(13개) : 램(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 **표시단위**
 - 10진수 중량·용적단위 사용 : g, ㎖, 개, m 등

3.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

- **표시금지 의무자(요령 제12조)**
 - 요령 제11조의 표시금지 품목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표시금지대상 품목(요령 별표3)**
- **가전제품(14개)**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의류(4개)** : 신사정장(코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기타용품(7개)** :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위반횟수에 따라 시정 및 과태료 조치)**
 -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 442-9872
 - 각 군·구 : 지역(산업)경제과

한 각 군구의 주정차 위반 상습지역 66곳 중 33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지역도 카메라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 탑재용 단속차량을 11대 배치해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350도 회전하면서 불법 차량을 촬영한 뒤 단속 내용을 실시간으로 군구 교통과 전산 시스템에 입력시킵니다. 고성능 단속카메라가 달린 차량도 상습위반 지역을 돌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구** : 동인천 국민은행 앞, 동인천 SK 텔레콤 앞, 신평시장 입구, 연안동 국민은행 사거리, 공항신도시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 **남동구** : 하이웨이주유소 앞, 간석사거리주유소 앞, 구월동 우리은행 앞, 만수시장 앞, 간석시장 주변
- **부평구** : 부평로 부평문고 앞, 부평로 문화의 거리 앞, 진선미예식장 앞, 진선미예식장 건너 편, 마장길 국민은행 앞, 마장길 새봄산부인과 건너편, 대정로 조흥은행 앞, 대정로 시장로터리 앞

- **계양구** : 병방초등학교 사거리, 신대사거리, 경인교대 사거리 약국 앞, 계산삼거리 약국 앞, 계산역 사거리 화원 앞, 계양구청 사거리, 까치말사거리 병원 앞, 주부토길 6거리 축협 앞

- **서구** : 신현쇼핑센터 앞, 거북시장 앞, 석남동 수협 앞
- **강화군** : 중앙로 파리바게트 앞, 중앙로 우리은행 앞, 중앙로 제일은행 앞, 중앙로 허니밀 앞, 버스터미널 풍물시장 앞

이름 짓고 상금타고...풀리면 참가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직접 알리고 의회에 대한 시민참여도를 높이고자 발행하는 의회의 홍보물 「인천시의회소식」의 명칭(제호)을 공모합니다. 의회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면서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으로 많은 공모 바랍니다.

- **기간** : 12월 1일~ 31일(31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당선작** : 최우수상(1명) 400,000원, 우수상(2명) 각 100,000원, 가작(10명) 각 10,000원
- **선정기준** : 인천광역시의회의 주요활동 상황을 담은 소식지라는 이미지를 참신하게 살리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가 편안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 **시의회소식지 내용구성** :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의회소식, 상임위활동, 기고문 등으로 구성
- **응모방법** : 명칭(제호) 및 그 의미를 작성하여 제출.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팩스 : 032) 440-6039, e-mail : yona@incheon.go.kr
 - 우편 : (405-750) 인천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 **당선작발표** : 2005년 1월말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www.icouncil.go.kr)에 발표
- **기타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이메일이 있는 경우)를 기재하여 제출(익명제출자는 심사에서 제외)
 - 당선작 응모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금은 균등배분
 - 개인당 제출편수는 제한없음

문의 _ 인천광역시의회 공보팀(440-6057)

화 폭 에 담 긴 인 천 풍 경 ⑩ | 황흥철 <소래포구>



<소래포구>58×79cm, 종이에 수묵담채, 2000

황흥철은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인천을 연고로 작업해오고 있는 중진이다. 전통 수묵산수를 근간으로 모던한 형식의 채묵과 사실적 풍경에 천착해 온 그는 수차례의 해외전과 국내 개인전을 통하여 기본에 충실한 한국화가로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통적인 필묵법으로 대상을 재현해 내면서도 그 결과가 서양화에 비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둔 형식을 선호해 온 것이다. 일필휘지의 직관력 보다는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정서에 육화시켜 가시화시킨 그의 그림은 화가의 겸손한 성품과 동일시되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이런 그의 그림은 볼수록 정감이 가는 흡입력이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분별력 있게 대상을 선택하여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소양과 이를 재현해낼 수 있는 화가로서의 재능을 겸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그림은 때 이른 서설이 포구를 뒤덮은 어느 날 소래의 풍정을 포착한 것이다. 인천의 화가들이면 누구나 몇 번쯤 그려봤을직한 곳이지만 황흥철은 모든 영욕이 눈 속에 가려진 시점을 택했다. 그러나 눈 속에 뒤덮인 작업도구도 정박된 배들도 곧 소래사람들의 분주한 삶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소래의 일상을 볼 때 이러한 풍정이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치이자 지루함이기 때문이다.

글 _ 이경모(인천대학교 겸임교수 / 미술평론가)

사업 고민 좌~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 · 컬러 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